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7681

2009년 2월
교육학석사(국어교육)학위논문

연군시가의 유형별 특성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강 찬 미

연군시가의 유형별 특성 연구

- (A) Study on Characteristics by the Types of the Yeongun Poetry -

2009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강 찬 미

연군시가의 유형별 특성 연구

지도교수 이 상 원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국어교육) 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8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강 찬 미

강찬미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정주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수중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상원 인

2008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ABSTRACT

(A) Study on Characteristics by the Types of the Yeongun Poetry

Kang Chan-Mi
Advisor: Professor Lee Sang-Won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Yeongunsiga means the poetry describing the love for kings. At this time, the love for kings were described in various emotional ways according to t he conditions of speakers. However, previous studies have not paid attentio n to the general poetry. However, they identified poetry on love for kings as part of Sijo or Gasa without no organized classification on the poetry of the love, and considered the various representations of love for kings as si mple.

Therefore, this study describes the concept and range of the love poetry, expands the range of this genre to Hayangga and Gasa beyond the range o f previous studies confined to Sijo and Gasa, and classifies the love poetry as Yeongun, Gyeonjeok, and Bohyo based on the 『Chongjin』 by Kim Cheon-Taek as bibliographical data in order to find its characteristics.

The key points of each chapter are presented as follows:

Chapter Ⅰ identifies the purposes, subjects and method of the study based on the history of the research on it. As the subjects to look at have wide range, this study selects the ones which have definite themes of love for kings. And to approach to them in a perspective of the people at that time, this study uses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Chongjin』 by Kim Cheon-Taek.

Chapter Ⅱ presents the concept and types of poetry describing love for ki

ngs. Yeongunsiga indicates the poetry describing the love for kings of the Korean poetry such as Hyangga, Goryeosokyo, Akjang, Sijo, and Gasa. At t his time, the love for kings is defined as embracing all the diversified and complex emotions of speakers that are found in respect to kings. This stud 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etry collected in Yeongun, Gyeonje ok, and Bohyo, a classification system based on the 『Chongjin』 by Kim Che on-Taek, and differentiation of the three types. Based on the results, we re organized the meanings of Yeongun, Gyeonjeok, and Bohyo according to the emotional attitudes of speakers in the poetry. Yeongunsiga describes distres s of faithful subjects. In Gyeonjeoksiga, speakers who are realistically or ps ychologically severed from kings sing love for kings with tragic emotion. Fi nally, in Bohyosiga, speakers represent their gratitude to the benefits from kings.

Chapter Ⅲ classifies the poetry of love for kings selected according to the three different types of Yeongunsiga and examines their characteristics.
So, Yeongunsiga includes <Dansimga> by Jeong Mong-Joo, <Yeongunsijo> b y Shin Heum, <Samiingok> and <Sokmiingok> by Jeong Cheol; Gyeonjeoksig a includes <Wonga> by Shin Chung, <Junggwajung> by Jeong Seo, <Gangho yeongunga> by Jang Gyeong-Se, <Gyeonhoiyo> by Yun Seon-Do, <Manbung a> by Jo Woi, <Jadosa> by Jo Woo-In, <Bukgwangok> by Song Joo-Seok, <Beolsamiingok> by Kim Chun-Taek, <Soksamiingok> by Lee Jin-You; Bohy osiga includes <Ganghosasiga> by Maengsasung, <Gamguneun> by the unkn own, <Yeongunsijo> by Kim Gu, and <Yeongunga> by Shin Gye-Young.

Chapter Ⅳ organi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Yeongunsiga based on the r esults of the study. So it is found that Yeongun and Bohyo are mainly repr esented in Sijo and Gyeonjeok is mainly in Gasa. The love for kings in Yeo ngun and Bohyo can be fully represented in a simple form. However, as th e love in Gyeonjeok is represented in more complicated way, it is more ap propriate for longer form of Gasa with free style. And it is found that there were more Yeongunsigas in the early Joseon period, but more Gyeonjeoksig

as in the late Joseon period, which means that confusing social atmosphere and collapse of feudalism at the late Joseon period caused change in recog nition.

Chapter Ⅴ suggests that further studies on Yeongunsiga should be actively develop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목 차】

Ⅰ. 서론

1. 연구 목적 ····· 1
2. 연구사 ····· 3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 5

Ⅱ. 연군시가의 개념과 유형

1. 연군시가의 개념 ····· 8
2. 연군시가의 유형 분류 ····· 9

Ⅲ. 각 유형별 작품 고찰

1. 연군형 시가 ····· 19
2. 견적형 시가 ····· 28
3. 보효형 시가 ····· 64

Ⅳ. 연군시가의 유형별 특성

1. 군주를 향한 일편단심 : 연군형 ····· 71
2. 소외된 화자의 복합 감정 : 견적형 ····· 73
3. 군은에 대한 감사의 정 : 보효형 ····· 77

Ⅴ. 결론 ····· 79

◆ 참고문헌 ····· 81

Ⅰ. 서 론

1. 연구 목적

문학은 인간의 사상과 정서를 언어로 표현한 예술 양식이라 할 수 있다. 사상과 정서는 인간의 구체적 삶 속에서 형성된다. 작가는 소소한 작은 일에서부터 복잡 난해한 일에 이르기까지 숱한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그 속에서 형성되는 사상과 정서를 문학작품으로 표출해낸다. 그러하기에 문학은 시대적 의식과 배경을 바탕으로 형성된 정서적, 사상적 체험을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시가문학은 향가, 고려가요, 시조, 가사 등 각 시대마다 새로운 양식이 산출되어 왔으며, 이들 역사적 갈래들은 각기 특유의 사상과 정서를 담아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시대적 특성과 갈래적 속성을 초월하여 인간과 자연의 보편적 문제에 대해 노래한 작품들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존재한다.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중 보편적 주제를 다룬 작품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연군(戀君)'을 주제로 한 작품을 집중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연군'이란 문자 그대로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낸 것인데, 이는 사상적 측면에서 '충(忠)'의 관념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성향을 띠고 있지만 정서적 측면에서는 작가마다 그리움을 표출하는 질감이 다르다는 점에서 개별적 성향을 띠고 있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연군'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다룬 작품을 대상으로 삼지만 그 구체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작가와 작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정서적 차이에 주목하고자 한다. 다만 개별 작가와 개별 작품에 나타나는 정서적 차이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작품별로 파편화된 정서적 특성만을 살피게 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공통적 지향을 중심으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 특성과 유형들 상호 간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기존 연구에서는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용어로, '연군'과 더불어 '충신연주지사(忠臣戀主之詞)', '사미인(思美人)' 등 논자에 따라 제각기 다른 명칭을 사용해 왔다. 본고에서는 이 중 '연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1] 사용하

1) 이에 대해서는 Ⅱ장 1절에서 자세히 논할 예정임.

는 명칭에 차이가 있기는 하였지만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한 작품을 하나의 명칭 하에 포괄하여 다루고 있는 점에서 기존 연구는 동일한 지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현대 연구자들의 이런 관념과 달리 18세기 초반 김천택이 편찬한 『청구영언』[2]에는 오늘날 우리가 '연군'의 범주에 포함하여 다루고 있는 작품들을 세 가지로 나누어 수록하고 있다. 즉 『청구영언』 무명씨 부분은 50여 개의 주제로 나누어 작품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 중 맨 앞쪽에 배치된 '연군(戀君)', '견적(遣謫)', '보효(報效)'에 수록된 작품들은 오늘날 우리가 '연군'의 범주로 포괄하여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다. 지금 우리가 '연군'으로 포괄하여 인식하고 있는 것을 18세기의 『청진』에서는 세 가지로 나누어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재 우리들의 태도와는 달리 『청진』 무명씨에서 '연군', '견적', '보효'를 명확하게 나누고 있는 것은, 상호 간에 분명한 경계선을 갖는 미적 형상들로 이들을 구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3] 김용철은 이렇듯 18세기에는 나누어져 있던 주제가 현대의 연구에서는 하나의 인식 안에 묶여 있는 이유와 관련하여 '연군' 속의 몇 가지 층자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4]

'연군'을 둘러싼 이런 인식의 차이는 전근대사회에서는 '연군'의 실체가 명확히 존재했던 데 비해 오늘날은 '연군'의 실체가 사라진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근대시대에는 왕이 존재했으며 왕은 절대적인 존재였다. 성체, 용안, 어수, 곤룡포, 수라, 옥대, 어식 등 오로지 임금만을 위한 어휘가 별도로 존재했다는 점에서 절대자로서의 임금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백성들은 이런 임금을 무조건 섬겨야 하는 대상으로 여겼고, 임금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았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은 그들의 인식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통해 볼 때 전근대사회에서 '연군'의 문제는 구체적 실질을 갖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연군'과 관련된 인식에 있어서도 그만큼 세분된 인식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은 '연군'의 실체가 사라진 시대라 할 수 있다. '연군'의 대상인 임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연군'과 관련된 구체적 실질도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때문에 '연군'의 문제는 추상화된 관념으로만 남게 되었다. 이것이 '연군'과 관련된 세분된 인식에 도달하기 어려운 이유다.

---

2) 김천택, 『청구영언』(조선진서간행회, 1948). 이하 『청진』으로 약칭함.
3) 김용철, 「『진청』 무씨명의 분류체계와 시조사적 의의」, 『고전문학연구』 16집(한국고전문학회, 1999).
4) 위의 논문.

비록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나 전근대시대 연군문학(戀君文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관념에서 벗어나 당대의 상황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연군문학 중 연군시가(戀君詩歌)로 대상을 한정하여 이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연군시가를 세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 특성과 유형 상호 간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사

'연군시가'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본고에서처럼 '연군시가'라는 포괄적 용어를 사용하여 접근한 경우는 찾기가 힘들다. 대신 시조와 가사의 하위 범주로 '연군시조(戀君時調)'와 '연군가사(戀君歌辭)'를 다룬 연구가 일부 있어 왔다. 그 밖에 '충신연주지사'나 '미인사' 등의 명칭을 사용한 연구 또한 한 문학 갈래 범위 안에서 특정 작품을 대상으로 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 동안 단일 갈래나 개별 작품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에서 연군시가의 개념 및 범주, 연군시가의 유형 분류와 관련성이 있는 것들을 위주로 연구사를 검토함으로써 연군시가의 개념 및 범주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형 분류를 시도하는 데 일정한 보탬을 얻고자 한다.

먼저 연군시가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선행 연구를 보면 다루는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남을 볼 수 있다.

연군가사를 대상으로 한 최상은은 고신(孤臣)의 처지에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노래한 가사로 정의하고 있다.[5] 즉 연군가사는 의식적으로 충이라는 덕목을 실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나타냈다기보다는 고신의 처지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서를 보여 주는 작품들이라고 하여 고신의 처지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정경주는 정서의 <정과정>을 대상으로 하여 충신연주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충신연주지사란 유일의 절대 권력이 지배하는 중세사회에서 상층지향적인 중세관료의 의식과 정서를 나타낸 것으로, 어지러운 시국을 당하여 국가의 위기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다가 간신배들의 모함에 빠져 쫓겨난 신하가 군주와

5) 최상은, 「'戀君'歌辭의 짜임새와 미의식」, 『반교어문연구』 제5집(반교어문학회, 1994).

국가의 앞날을 염려하여 마지않는 심정을 읊은 노래라고 정의하였다.[6]

강문호는 유배가사 본사의 내용을 유배지로 가는 노정, 유배지에서의 생활, 유배지에서 느끼는 심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이 중 유배지에서 느끼는 심회의 일부로 연군의 정을 설정해 놓고 있다. 비록 정적이나 간신의 모함으로 귀양을 간 유배객이지만 나라를 생각하고 임금을 그리워하는 연군의 정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외에 결백 의식과 귀향 의지를 따로 설정하여 유배를 당한 작자의 대부분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타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유배를 가게 되었으며 임금의 올바른 판단으로 풀려나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내용을 함께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7]

이상 몇몇 논자의 예를 통해 연군시가의 개념 및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가사의 하위 범주로서의 연군가사 또는 유배가사를 대상으로 하거나 <정과정> 한 작품을 대상으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이를 연군시가 전체에 대한 정의로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연군시가의 유형 분류 또한 다루는 대상과 연구자의 관심사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재호는 충을 주제로 한 시조 17수를 대상으로 이를 크게 성은(聖恩)과 충성(忠誠)의 방법(方法)으로 구분하고 있다. 성은은 군주(君主)의 은혜(恩惠)로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한 감사(感謝)를 노래한 작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으며, 충성의 방법에는 일편단심(一片丹心), 연군(戀君), 충간(忠諫) 등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고 하였다.[8] 이런 정재호의 분류는 성은 또한 충성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성은과 충성의 방법을 구분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일편단심과 연군의 구분도 모호하다는 느낌이 든다.

김용배는 『교본 역대시조전서』에 수록된 시조 중 충효를 노래한 작품을 대상으로 연군충심(戀君衷心), 위군충간(爲君忠諫), 성은감사(聖恩感謝), 우국충정(憂國衷情), 위군충절(爲君忠節), 애국애족(愛國愛族), 축송수(祝頌壽), 성모덕(聖母德), 호국기개(護國氣槪), 충효(忠孝) 등으로 분류하였다.[9] 김용배의 분류는 충과 효를 모두 포함시켰고 충 가운데는 우국충정이나 애국애족처럼 임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6) 정경주, 「정서의 생애와 충신연주지사로서의 <정과정>」, 『釜山漢文學硏究』 8집(동양한문학회, 1994).
7) 강문호, 「유배가사 연구」, 석사논문(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8) 정재호, 「국문학에 나타난 충효사상에 관한 고찰」, 『국어국문학』 18권 제 77~78호(국어국문학회, 1978).
9) 김용배, 「고시조에 나타난 충효 사상 연구」, 석사논문(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84).

것도 포함되어 있어 본고에서 분류하고자 하는 것과는 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용배가 자세한 분류를 시도한 반면 강구동은 동일한 고시조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충의 표현 양상을 연군(戀君)의 정을 노래한 시조, 임금에 대한 충절(忠節)을 노래한 시조, 임금의 은혜(恩惠)에 대한 감사를 노래한 시조, 국가에 대한 충성(忠誠)을 노래한 시조 등 넷으로 단순화하였다.[10]

한편 김주곤은 유배가사를 연군의식(戀君意識), 우국지사(憂國之士), 진충보국(盡忠保國)으로 분류하였다.[11] 또한 그는 이런 유배가사의 분류를 시조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연군(戀君), 우국(憂國), 진충(盡忠)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12] 김주곤은 세 분류를 구분하기 위해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기는 하였으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경계가 불분명한 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 연군시가의 개념과 범주, 그리고 유형 분류를 중심으로 연구사를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연군시가 전반에 대한 개념이나 범주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가사의 경우에만 연군가사라 하여 나름대로 개념과 범주를 설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유형 분류의 경우 장르 폭을 확대하여 시조까지 포괄하고 있으나 충을 주제로 한 작품의 일부로 연군을 파악하고 있을 뿐 연군 자체를 세부 분류한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인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군주를 향한 그리움의 마음이나 군주를 향한 충성의 마음은 문학 장르 중 한 분야에 국한되어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문학 장르 곳곳에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되어 왔다. 전근대 시대에는 어느 시대에나 군주가 존재하였고, 그 군주에게 충성을 바치는 신하가 있었다. 그리하여 정치에 참여한 신하가 군주 가까이에 지내면서 군주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을 노래하기도 하였으며, 정치세계에서 벗어나 강호에 묻혀 지내는 신하가 때를 기다리며 군주에 대한 그리움의 마음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연군문학은 고전시가뿐만 아니라 고전산문 및 한문학에 이르기까지 광범

10) 강구동, 「고시조에 나타난 충· 효사상 연구」, 석사논문(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1996).
11) 김주곤, 「유배가사에 나타난 충절의식 양상」, 『한민족어문학』 16집(한민족어문학회, 1989), p.349.
12) 김주곤, 「韓國時調에 나타난 忠 思想 硏究」, 『경산대학교논문집』 17집(경산대학교, 1999).

위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연군문학의 실체를 온전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들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고의 주된 목적이 연군문학의 전모를 살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단일하게 인식되어 오던 연군문학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 특성을 고찰하는 것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연구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전시가 영역으로 논의를 집중하고자 한다.

고전시가 영역에서 연군에 대한 의식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시조와 가사라 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연구자들이 연군에 대한 연구를 시조와 유배가사에 집중해서 진행해 왔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연군에 대한 의식이 고전시가 영역 중 양적으로 시조와 유배가사에서 많은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여타 시가 장르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연군시가에 대한 범위를 향가, 고려속요, 악장, 시조, 가사 등 전 시가 장르로 확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 각 시가 장르에서 연군을 주제로 한 작품을 모두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본 연구의 주 관심사가 연군시가의 세부 유형 분류에 있으므로 각 시가 장르에서 연군의 주제 의식이 뚜렷한 작품을 선정하기로 한다. 본고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작품은 다음과 같다.

향　　가	신충의 <원가>
고려속요	정서의 <정과정>
악　　장	작자 미상의 <감군은>
시　　조	정몽주의 <단심가>,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김구의 <연군시조>, 장경세의 <강호연군가>, 신흠의 <연군시조>, 윤선도의 <견회요>, 신계영의 <연군가>, 『청구영언』(진본) 무명씨의 <연군시조>
가　　사	조위의 <만분가>, 정철의 <사미인곡>과 <속미인곡>, 조우인의 <자도사>, 송주석의 <북관곡>, 김춘택의 <별사미인곡>, 이진유의 <속사미인곡>

향가, 고려속요, 악장의 경우 해당 작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표성을 띤다고 판단되는 한 작품씩을 선정하였다. 이들에 비하면 시조와 가사는 연군시가의 범주에 해당하는 작품들이 훨씬 많은 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삼

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는데다, 본고의 목적이 유형 분류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각 유형별 차별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몇 작품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시조와 가사의 경우 시대별 분포를 고려하고 상호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각 7편씩[13]을 선정하였다.

본고에서는 위의 작품을 대상으로 연군시가의 유형 분류를 시도하되 그 방법은 오늘날 우리의 시각이 아닌 전근대시대 당대인의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청진』무명씨에서 김천택이 시도한 분류체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분류 체계는 비록 시조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는 하나 연군시가 전체로 확대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13) 시조의 경우 8편이나 『청진』무명씨의 <연군시조>는 유형 분류를 위한 방법론적 차원에서 활용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고찰 대상은 이를 제외한 7편이다.

Ⅱ. 연군시가의 개념과 유형

1. 연군시가의 개념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한 작품에 대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연군문학, 충신연주지사, 사미인 등의 명칭을 사용해 왔다. 이 중 충신연주지사는 연군의 주체가 충신임을 명시함으로써 충신의 입장에서 연군의 정을 표출한 작품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연군의 주체가 대부분 충신이기는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명확히 충신이라고 규정하기 힘든 경우도 있으므로 굳이 연군의 주체를 충신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사미인은 연군의 대상이 흔히 미인으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사용해온 명칭이다. 그러나 이 역시 모든 작품에서 미인으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연군을 다룬 작품 전체를 포괄하기에는 부적절한 용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연군문학이라는 용어가 가장 객관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연군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한편 연군시가는 연군문학 중에서 국문시가에 속한 것만을 가리키는 명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군문학에 속한다 하더라도 한시나 고전산문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서 배제된다. 즉 연군시가란 향가, 고려가요, 악장, 시조, 가사 등 국문시가에 해당하는 장르로 창작된 작품 중 연군의 정을 표출한 작품을 가리킨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연군의 정에 대한 개념과 범주이다. 연군의 정은 고신(孤臣)의 처지가 어떠하냐에 따라 화자의 심정이 다양하고도 복잡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임금을 향한 그리움이나 연모의 정을 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을 향한 화자의 충절, 군은에 대한 감사가 나타나기도 하며 또한 임금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표출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신(孤臣)이 임금과 관련하여 또는 임금 때문에 일어나는 다양하고 복잡한 정서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연군의 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2. 연군시가의 유형분류

앞서 연구사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군시가 전체를 대상으로 유형 분류를 시도한 기존 연구는 없으며, 다만 연군시조나 연군가사를 대상으로 분류를 시도한 것이 일부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존의 분류를 답습하기보다는 새로운 분류를 시도하고자 한다. 새로운 분류와 관련하여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김천택이 『청진』 무명씨에서 사용한 분류체계이다. 『청진』 무명씨에는 연군, 강호, 한적 등 50여 개의 주제어를 사용해 작품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 중 맨 앞에 배치된 연군(戀君), 견적(遣謫), 보효(報效) 등 세 주제어에 수록된 작품은 오늘날 우리가 연군시조로 이해하고 있는 작품들이다. 따라서 이들 항목에 수록된 작품들의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이들 세 항목이 어떤 변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이들을 연군시가 전체로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의 님 向ᄒᆞᆫ ᄠᅳᆺ이 주근 後ㅣ면 엇더ᄒᆞᆯ지
桑田이 變ᄒᆞ여 碧海ᄂᆞᆫ 되려니와
님 向ᄒᆞᆫ 一片丹心이야 가실 줄이 이시랴.

가마귀 눈비 마자 희ᄂᆞᆫ 듯 검노믜라
夜光明月이 밤인들 어두오랴
님 向ᄒᆞᆫ 一片丹心이야 고칠 줄이 이시랴.

간밤의 우던 여흘 슬피 우러 지내여다
이제야 ᄉᆡᆼ각ᄒᆞ니 님이 우러 보내도다
져 물이 거스리 흐로고져 나도 우러 녜니라.

늙고 病든 몸이 北向ᄒᆞ여 우니노라
님 向한 ᄆᆞ음을 뉘 아니 두리마ᄂᆞᆫ
ᄃᆞᆯ 볼고 밤 긴 적이면 나ᄲᅮᆫ인가 ᄒᆞ노라.[14]

위의 작품들은 『청진』 무명씨에 연군으로 분류된 것들이다.

14) 김천택, 앞의 책. 이하 수록된 작품들도 이 책에 의거함.

첫 번째 작품은 님을 향한 그리움과 충정은 죽음으로도 변할 수 없는 것이며,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하여도 자신의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절대적인 충의 의식을 담아 임금에 대한 마음을 노래한 작품이다. 특히 끝 구절은 고려 왕조에 대한 강렬한 충성심을 토로한 정몽주의 <단심가>[15]와 같은 표현이다.

두 번째 작품에서는 까마귀와 야광명월의 대비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즉 까마귀가 변심한 신하들이라면 야광명월은 변절하지 않는 충신이라 할 수 있다. 까마귀가 눈비를 맞아 잠시 하얗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의 본 모습으로 되듯이 한번 변절한 간신들은 또 다시 변절할 수 있다. 반면 모든 것이 어두운 밤에도 야광명월만은 언제나 밝은 것처럼 어떠한 역경에도 충신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곧 변하지 않는 충신은 자신이며 님을 향한 일편단심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굳은 충의와 절개를 담았다.

세 번째 작품에서 여흘의 소리는 님의 울음으로 다시 나의 울음으로 바뀐다. 그리워하는 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슬픔을 자연의 소리에 의탁하고 거스를 수 없는 환경조차 거슬러 화자는 님의 곁에서 님을 모시고 싶어 한다. 이처럼 이 시에서는 님의 곁에서 님을 보좌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안타까운 처지와 충신의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다.

네 번째 작품에서 화자는 늙고 병든 몸을 지닌 화자지만 임금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늘 몸과 마음은 임금이 계시는 쪽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하된 도리로, 백성된 도리로 임금에 대한 충정의 마음을 누구나 지니겠지만 그 누구보다 화자 자신의 충정이 더 깊음을 노래하고 있다.

이상 연군에 수록된 작품들은 시적화자가 충신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주된 정서는 임금을 향한 일편단심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님이 헤오시매 나는 젼혀 미덧ᄃᆞ니
날 ᄉᆞ랑ᄒᆞ던 情을 뉘손ᄃᆡ 옴기신고
처음에 믜시던 거시면 이대도록 셜오랴.

어제 감던 머리 현마 오ᄂᆞᆯ 다 셀소냐
鏡裏衰容이 이 어인 늘그니오

15) “이 몸이 주거주거 일백 번 고쳐 주거 / 白骨이 塵土 되여 넉시라도 잇고 업고 / 님 향한 一片丹心이야 가실 줄이 이시랴.”

님계셔 뉜다 ᄒᆞ셔든 내 긔로라 ᄒᆞ리라.

이리 혜고 져리 혜니 쇽절업슨 헴만 만희
業 구즌 人生이 살고져 사란ᄂᆞᆫ가
至今히 사라 잇기ᄂᆞᆫ 님을 보려 홈이라.

위의 작품들은『청진』무명씨에 견적으로 분류된 것들이다.

정치인의 삶은 항상 순탄할 수만은 없다. 늘 정치적인 싸움이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뜻하지 않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한다. 첫 번째 작품 속 화자 역시 한결 같을 거라고 믿었던 님의 총애가 다른 이에게로 옮겨가게 되자 그에 대한 서러움과 님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두 번째 작품에서 화자의 머리는 검은 머리에서 백발로 변하였으며, 이는 바로 오랜 세월이 지났음을 의미한다. 화자는 오랜 세월이 지나 머리는 백발이 되고 외모는 주름살이 진 노인이 되었다. 하지만 화자는 자신의 외모가 그렇게 변해가는 시간 동안 그리운 님을 뵙지 못하였다. 이제 님께서 자신을 알아보실지 의문마저 들 만큼 흘러간 세월이 야속하고 흘러간 세월만큼이나 화자의 절망도 큼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작품에서 화자는 자신의 삶을 속절없는 생각만이 가득하고, 팔자가 사나운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화자에게 지금 주어진 현실은 가혹한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화자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한이 가득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만나지 못한 님을 보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하여 애절한 그리움의 정서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 견적에 수록된 작품들은 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신세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으며, 그 상태에서 님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바탕에 깔고 있으면서도 서러움, 절망, 한과 같은 현재의 부정적 처지와 연관된 정서가 많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靑山아 웃지 마라 白雲아 戱弄 마라
白髮紅塵에 내 즐겨 ᄃᆞᆫ니더냐
聖恩이 至重ᄒᆞ시니 갑고 가려 ᄒᆞ노라.

故園花竹들아 우리를 웃지 마라
林泉舊約이야 니즌 적이 업건마ᄂᆞᆫ
聖恩이 至重ᄒᆞ시니 갑고 가려ᄒᆞ노라.

위의 작품들은『청진』무명씨에 보효로 분류된 것들이다.

첫 번째 작품 속 화자는 강호의 세계로 가려고 하나 임금의 은혜를 때문에 가지 못함을 말하고 있으며, 두 번째 작품의 화자 역시 강호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살고자 했으나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세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 보효에 수록된 작품들은 속세에서 살고 있는 시적화자들이 강호의 삶을 원하고 있으나 임금의 성은을 갚고 가기 위해 속세에서 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의 작품 9수는 모두 연군의 정을 노래한 것이지만 작품 속에 나타나는 화자의 내면 지향은 한결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연군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 속 화자들은 모두 일편단심의 충절의식을 노래하고 있으며, 견적에 수록된 작품 속 화자들은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하면서도 일방적인 충절의식보다는 자신의 서러움과 쓸쓸함을 함께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보효에 수록된 작품 속 화자는 강호의 삶을 꿈꾸고 있으며, 임금의 성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연군'이라고 한데 묶어서 인식하고 있는 작품들을『청진』무명씨에는 3분류 체계로 구분하여 수록하고 있어, 과거 선조들은 연군시가를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론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식의 차이에 기인한 문제일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회와 문화도 변화하듯이 사람들의 인식도 변화하게 된다. 과거에는 임금이 존재했으나 현재에는 임금이 없는 것처럼 그에 따라 연군에 대하여 몇 가지 층자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임금의 존재와 함께 사라진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청진』무명씨의 분류체계를 기본으로 삼아 연군시가를 분류해 보고자 한다.

김용철은『청진』무명씨에 분류되어 있는 연군, 견적, 보효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연군은 임금 곁에 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 화자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피나는 마음을 그리고 있는 시조이다.

견적은 「사미인곡」이나 장신궁의 반첩여와 같이 내침을 당한 여인의 정서로 이루어져 있다.

보효는 임천구약(林泉舊約)과의 관계가 임금의 은혜 때문에 방해받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시조이다.[16]

연군, 견적, 보효에 대한 김용철의 위의 정의는『청진』무명씨에 수록되어 있는 시조 작품들에 국한할 경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하지만 본고에서처럼 연군시가의 대상을 향가에서 가사까지 국문시가 전체로 범위를 넓혀 적용시킬 때에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특히 견적과 보효의 정의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견적은 한자 풀이를 보면 견(遣)은 '보내다', '파견하다', '놓아주다'의 의미고 적(謫)은 '귀양가다', '유배되다', '꾸지람', '견책', '벌하다'의 의미이다. 이런 풀이를 참조할 때 견적은 '유배가다' 정도의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면에서는 김용철의 정의에서 '내침을 당하다'는 것과 부합된다. 하지만 그 뒤에 '여인의 정서로 이루어졌다'는 말이 문제의 대상이 된다. 견적에서 '여성'이라는 성(性)에 대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나머지 분류는 '남성'에 의한 정서로 상대적인 의미가 작용되게 되는데, 작품에 드러나는 화자의 목소리를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하는 것은 정확한 어휘 체계나 문법적인 요소의 조건이 마련되지 않는 한 개인에 따라 주관적으로 다르게 볼 수 있는 관점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견적을 여성의 정서로 보고 상대적인 의미로 연군을 남성의 정서로 본다면 임금의 은혜를 내세우고 있는 보효는 연군과 견적에 비하여 그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 분류기준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작품을 분류할 때 모호함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보효에 해당하는 작품 내용이 여인의 정서로 이루어져 있을 때 이를 어느 쪽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모호하다. 또한 내침을 당하지 않았으나 여인의 정서로 내용이 이루어진 작품은 어느 쪽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이 역시 모호하다.

보효의 사전적 뜻풀이는 은혜에 보답하려고 정성을 다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김용철처럼 임천구약과의 관계가 임금의 은혜 때문에 방해받는 모습이라고 정의를 내리면 은혜에 보답하는 것보다는 방해를 받는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그리하여 '보효'라는 용어와 뜻의 어감이 다르다는 느낌이 먼저 들게 된다. '임천구약'이라는 용어는 '자연'이라는 배경을 작품 안에 제한적으로 설정하기도 한다. 그

16) 김용철, 앞의 논문.

러나 군은에 대한 감사는 '자연'이라는 배경과 상관없이 관직을 하는 동안에도, 관직을 그만 둔 동안에도 발생할 수 있는 감정이다. 또한 위 정의와는 반대로 자연에서의 삶이 임금의 은덕이라고 노래하는 작품들도 있다. 때문에 위의 정의는 이러한 보효의 작품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는 너무나 좁은 범위로 설정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군시가를 분류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류의 기준이다. 그 기준이 명확해야하고 넓은 범위에 적용하여도 무리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연군, 견적, 보효에 대한 김용철의 정의는 분류 기준이 정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아 모호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작품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청진』무명씨에서 분류한 연군, 견적, 보효의 분류체계를 따르되 그 개념에 대한 정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작품 속 화자의 정서적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 다시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연군(戀君)형 시가

연군과 견적에서는 임금을 향한 그리움이 주 정서로 표출되고 있어 두 분류가 얼핏 보기에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세밀히 관찰할 경우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다.

연군, 견적 모두 기본적으로 임금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바탕으로 하되 연군은 충신의 일편단심의 정서가 중심적으로 그려지고 있다.『청진』무명씨 연군에 수록된 첫 번째 작품의 경우 모든 것이 변하여도 오로지 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충정을 노래하며, 마지막 구절에서는 '일편단심'이라는 직접적인 표현과 충신의 절의를 잘 보여주는 정몽주의 시조를 인용함으로써 더욱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불사이군(不事二君)의 태도로 강렬한 충성심을 토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강인한 어조로 일편단심의 충절의식을 표현한 화자의 태도와는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한다.『청진』무명씨 연군에 수록된 세 번째 작품의 경우 님의 슬픔이 곧 자신의 슬픔이며 때와 장소와 상관없

이 오로지 님에 대한 생각만으로 충만한 것으로 표현하여 위 두 작품에서 묻어나는 강인한 일편단심의 어조보다는 좀 더 감성적인 어조로 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노래한다. 이는 다음 장에서 논의할 연군시가의 작품 중에서도 유배가사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확연하게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하여 님을 향한 목소리가 더욱 풍부한 감성으로 표현되어 애처롭게 들리기도 한다.

이처럼 연군형 시가 작품에서 강인한 충절의식의 목소리를 담아 노래하든 감성적인 목소리로 담아 노래하든 중요한 것은, 그 목소리는 오로지 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자는 자신을 중심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님을 중심으로 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님을 걱정하면서 자신의 삶 또한 님을 위한 일부로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한 사람을 향한 일편단심을 표현한다. 즉 연군형 시가에는 충신의 일편단심 또는 충정을 다할 수 없는 처지에서 느끼는 안타까움과 시적 화자의 연민의 정이 나타나 있다.

2) 견적(遣謫)형 시가

견적은 화자가 처한 상황의 부정성을 바탕으로 쓰여지고 있다. 즉 현실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임금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리가 설정되어 있다. 자신 또는 타인의 잘못으로 절대적인 대상인 임금과 헤어진 상황은 화자에게 부정적인 공간이고, 슬픔의 공간이며, 벗어나야 할 공간이다. 님은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이자 전부였던 대상이기에 님의 부재는 화자에게 큰 절망이 아닐 수 없다. 자신은 님과 떨어져 먼 곳에 위치해 있지만 자신을 버린 것은 님이 아니며, 님과 자신의 사이를 이간질한 정적의 잘못이다. 그리하여 님은 원망의 대상이기보다는 그리움의 대상인 것이며 자신의 억울함에 대한 원망은 정적을 향하여 외치고 있다. 님이 있는 공간에 함께 있지 못하고 님이 없는 공간에 홀로 있는 화자에게 그 공간은 비극적인 상황으로 화자는 비극적인 정서를 표출할 수밖에 없다. 이는 화자가 처한 상황에서 자기중심의 내면의 목소리를 표출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보다는 님의 안부를 더 걱정하고 님을 위한 일편단심의 내면의 마음을 담은 연군의 화자와는 다른 모습이다. 그리하여 견적의 화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토로하고 자신의 서러움과 회한, 억울함, 슬픔, 원망 등의 내면의 목소리를 담아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고 자신을 구원해줄

수 있는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다.

『청진』 무명씨의 견적 작품 3수에서 화자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님의 사랑이 다른 이에게 옮겨갔거나 세월이 흘러 님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님과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있거나, 업 궂은 인생이라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모두 사랑하는 님과 멀리 떨어진 상태에 위치해 있으며 화자에게 그 공간과 시간은 부정적인 것이고 비극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는 님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슬픔이 함께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점이 견적과 연군이 구별되는 이유이다. 즉 단순히 내침을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 또는 화자의 정서가 여성이냐 남성이냐가 아니라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바탕으로 표출하고 있되, 그 안에 드러나는 화자의 내면 정서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연군이 님을 향하여 일편단심만을 노래하였다면 견적은 자신의 비극적인 정서 또한 함께 담아서 표출하고 있다. 그러므로 견적은 군주와 현실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단절된 상태인 고신(孤臣)의 처지에 놓인 화자가 비극적인 정서를 담아 연군에 대한 그리움의 마음을 노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보효(報效)형 시가

『청진』 무명씨에 분류되어 있는 작품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연군, 견적, 보효 중 연군과 견적에 비해 보효는 확연히 분류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효의 화자는 청산(靑山), 백운(白雲), 고원화죽(故園花竹), 임천구약(林泉舊約) 등으로 표상되는 강호의 삶과 백발홍진으로 표상되는 속세의 삶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호에서의 유유자적한 삶을 원했으나, 임금의 높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속세를 떠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즉 벼슬에서 물러나지 못한 채 여전히 정치에 참여하여 임금을 보좌하고 있는 화자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다. 이에 김용철은 보효의 정의를 임천구약(林泉舊約)과의 관계가 임금의 은혜 때문에 방해받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시조라고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17] 하지만 이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청진』 무명씨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에 적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만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고전시가 일반에까지 적용하기에는 부합하지

17) 김용철, 앞의 논문.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보효(報效)의 사전적 의미는 은혜에 보답하려고 정성을 다함이다. 『청진』 무명씨에 수록되어 있는 보효 작품 역시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자신이 하고자 했던 강호의 삶을 선택하지 않고 정치인의 삶을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충절의식이나 그리움의 정서를 짙게 표현하고 있는 연군, 견적과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려는 화자의 심적 태도이다. 『청진』 무명씨의 화자들은 강호의 삶을 원하고 있으나 군은을 갚고자 속세를 떠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정치세계로부터 벗어나 강호에 살면서 군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다.

江湖에 봄이 드니 미친 興이 절로 난다.
濁醪溪邊에 錦鱗魚ㅣ 안주로다.
이 몸이 閑暇희 옴도 亦君恩이샷다.

맹사성 <강호사시가>

위 작품 속 화자는 자연 속에서 살아가면서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문학작품 가운데에서 치사한객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자연과 더불어 마음 편히 살아가는 것을 모두 임금의 은덕으로 여기며 감사해하는 작품을 찾아 볼 수 있다. 자연과 세속으로 작중 화자들이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임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출하는 것은 같다. 이와 관련해 보효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내면 지향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강호에 가고 싶으나 가지 않고서 현실, 즉 속세에 머물러 임금의 은혜를 갚고자 함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에서 벗어나 강호에 머무르면서 임금의 은혜를 갚고자 함이다. 전자의 경우 모든 것을 군은으로 돌리는 송축적인 태도가 나타나며, 후자의 경우는 강호와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화자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청진』 무명씨에 수록된 보효 작품 2수는 후자에 해당한다. 비록 임금이 자신을 총애해 주고 자신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끝없는 당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화자의 궁극적인 지향은 한적하고 심신수양을 할 수 있는 곳인 자연으로 돌아가 유유자적하게 지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자는 현재 도덕적으로 부끄럽지 않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무시할 수만은 없다. 그래서 군은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의 이면에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를 밝히고, 이런 자신을 비웃지 말고 희롱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모습을 취한다.

한편 맹사성의 <강호사시가>처럼 강호자연에서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화자가 자신이 누리는 모든 삶을 군은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작품들에서는 어떤 갈등도 나타나지 않으며 오로지 송축적인 태도만이 중시되고 있다.

따라서 보효의 의미는『청진』무명씨의 작품에서와 같이 벼슬을 하고 있는 화자의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될 것이다. 보효에서 중요한 것은 화자의 현재 위치가 아니라 임금을 향한 화자의 정서와 태도이다. 즉 군은을 잊지 않고 이를 가슴 속 깊이 느끼며,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읊은 것이면 화자의 현재 위치와 상관없이 보효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이상『청진』무명씨를 문헌적 근거로 삼아 연군시가의 유형을 연군, 견적, 보효로 분류하고, 이 세 분류 체계에 대한 의미를 김용철의 정리를 살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작품 속 화자의 내면의 정서적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 새롭게 정리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각 시가 장르에서 선별한 연군시가를 그 특성에 맞게 연군, 견적, 보효로 분류하여 작품 내용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Ⅲ. 각 유형별 작품 고찰

1. 연군형 시가

1) 정몽주의 <단심가>

이 몸이 주거주거 一白 番 고쳐 주거
白骨이 塵土되여 넉시라도 잇고 업고
님 向흔 一片丹心이야 가실 줄이 이시랴.

변하지 않을 일편단심을 백번의 죽음으로 표현하고 다시 백골이 흙과 먼지가 되어 넋이 있건 없건 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여 강한 충절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죽음으로도 부족하여 자신의 전부인 혼까지 마지막에 내세워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을 강렬한 충성심을 전하고 있다.

이 작품은 포은 정몽주의 시조로 뒤에 조선의 태종에 오른 이방원이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고 회유하기 위해 지은 <하여가>[18]에 대한 답가이다. 고려왕조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을 나타낸 것으로 두 임금을 섬기지 않겠다는 정몽주의 강한 의지와 절개가 잘 나타나 있다. 따라서 충신의 일편단심을 노래한 연군형 시가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2) 신흠의 <연군시조>

임금에 대한 충절은 다른 어떤 시조보다 신흠의 시조에서 더 간절하고 격렬하게 표현되고 있다. 신흠은 선조의 각별한 총애를 받았던 인물이며, 선조가 죽기 직전 영창대군을 보필해 달라는 부탁을 한 유교칠신의 한 명이었다. 때문에 영창대군이

18)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 만수산 드렁칡이 얽어진들 어떠하리 / 우리도 이같이 얽어져 백년까지 누리리라."

피살되는 현실과 방축되어 김포로 낙향을 하고 춘천으로 유배까지 가게 된 현실에서 그에게 선조에 대한 그리움의 의미는 단순히 태평성대를 누렸던 시대의 임금에 대한 그리움 이상이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신흠은 선조를 연모 대상으로 하여 연군의 정을 표출했다.[19] 신흠의 시조가 다른 어떤 작가의 연군시조보다 절실하고 강렬한 느낌을 주는 것은 바로 부재한 선조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가슴 헤친 피로 님의 양ᄌᆞ 그려 내어
高堂素壁에 거러 두고 보고지고
뉘라셔 離別을 삼겨 사ᄅᆞᆷ 죽게 하ᄂᆞᆫ고

님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강한지 화자는 가슴 속의 피로 님의 모습을 그려 고당소벽에 걸어두고 싶다는 표현으로 사무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자신의 피로 그린다는 것은 님이 곧 자신의 분신 같은 존재였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그러한 대상을 잃어버린 데서 오는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님과의 이별이 죽음까지 이르게 함을 탄식조에 가까운 어조로 나타냈으며, 임금에 대한 일편단심을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 듯한 그리움으로 표현하여 화자의 강한 절의를 보여준다.

寒食 비 온 밤의 봄빗치 다 퍼졋다
無情ᄒᆞᆫ 花柳도 ᄯᅢᄅᆞᆯ 아라 픠였거든
엇더타 우리의 님은 가고 아니 오ᄂᆞᆫ고

겨울은 가고 비가 온 뒤 더욱더 봄빛이 완연해졌다. 때를 알고 다시 봄을 찾아 꽃들도 제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다. 그러나 모든 자연물이 소생하는 때에 여전히 그리운 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때가 되면 피고 지고 하는 자연의 순리와 대조적으로 한번 떠나간 님은 돌아올 수 없음을 비교함과 동시에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잊을 수 없는 선조에 대한 신흠의 일편단심을 보여주고 있다.

---

19) 신흠 시조의 연모 대상이 광해군이 아닌 선조라는 것은 '이상원, 「신흠의 <방옹시여> 연구」, 『17세기 시조사의 구도』(월인, 2000)'에서 밝혀진 바 있다.

창 박긔 워석버석 님이신가 니러 보니
蕙蘭蹊徑에 落葉은 므스 일고
어즈버 有限ᄒᆞᆫ 肝腸이 다 그츨가 ᄒᆞ노라.

창 밖에서 들려오는 낙엽 소리가 혹여나 기다리는 님이 아닐까하는 기대를 갖고 나가보았으나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자 간장이 끊어질 것 같다고 하였다. 작은 소리에도 님이 오셨을까하는 기대를 가지는 화자의 태도에서 화자는 얼마나 간절히 님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마지막에서 간장이 다 끊어질 것 같다는 표현을 통해 곁에 없는 님에 대한 화자의 강한 그리움과 연모의 정을 나타내고 있다.

蒼梧山ᄒᆡ 진 후에 二妃ᄂᆞᆫ 어듸 간고
ᄒᆞᆷᄭᆡ 못 주근들 셔롬이 엇더ᄐᆞᆫ고
千古에 이 뜻 알 니ᄂᆞᆫ 댓숩핀가 ᄒᆞ노라.

二妃는 순임금의 비, 아황과 여영을 말한다. 아황과 여영은 창오산에서 죽은 제순을 따라 창오산의 소상강에서 빠져 죽었는데, 이들이 흘린 눈물이 대나무 숲에 떨어져 물들었다는 소상반죽이라는 고사에서 따와 지은 시이다. 님을 따라 자신의 목숨까지 버릴 수 있었던 여인들의 슬픈 마음만이 자신의 그리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님에 대한 강한 일편단심을 담아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신흠의 시조에서는 유배나 방축의 상황에서도 자신을 총애해 주었던 선왕인 선조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의 정을 일편단심의 태도로 담아내고 있다.[20]

3) 정철의 <사미인곡>과 <속미인곡>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은 송강 정철의 대표적인 작품이자 충신연주지사의 대표

20) 선조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을 표출한 신흠의 시조는 당시 임금이었던 광해군의 실정을 비판하기 위한 우회적 진술로 파악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방축과 유배를 경험한 작가가 자신을 이런 상태로 내몬 현실 정치에 대한 불만과 원망의 정서를 드러낸 것이므로 견적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적인 작품으로 꼽힌다. 정철은 16세기 후반에 주로 활동한 인물로 서인의 영수로 정치적 활동에 깊숙이 관여했지만 서인과 동인의 분열로 말미암아 논척과 모함 등을 받으면서 화려했던 정치생활을 뒤로하게 된다. 그러한 삶 속에서 정철이 임금을 향하여 자신의 일편단심과 연군지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군가사와 시조였을 것이다. 그 중에서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은 여성화자를 내세워 임금을 향한 작가의 일편단심의 마음을 애절하게 표현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사미인곡>은 사대부가 여성의 목소리를, <속미인곡>은 서민 여성의 목소리를 빌려와 그 표현의 어조가 다름에 주목하기도 했다.[21] 이로 인해 <속미인곡>이 <사미인곡>보다 문학적으로 뛰어나다는 평을 받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 작품 모두 나름의 독자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작가의 연군지정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미인곡>은 정철이 선조 18년(1585)에 사헌부와 사간원의 논척을 받고 창평으로 내려가 은거하면서 지은 것으로 선조에 대한 그리움을 이별한 님에 대한 연모의 정을 노래한 여인의 마음에 의탁하여 표현한 가사다. 총 63행, 126구로 되어 있으며 서사, 본사, 결사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본사는 춘하추동에 따른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절절하게 나타내었다. 사시를 활용한 구성법은 <성산별곡>과 <면앙정가>의 구성법과 같은 것이다.[22]

서사(1행~16행)에서 화자는 님과 자신을 천생연분이라고 말하면서 헤어져서는 안되는 운명적인 관계로 설정한다. 이렇게 한평생 함께해야 될 님과의 이별은 어떤 슬픔보다 화자에게 더 큰 슬픔과 절망으로 다가온다. 또한 공간적 배경으로 님이 계시는 곳을 광한전으로, 자신이 있는 곳을 하계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곧 만날 수 없는 님과의 거리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외오 두고 그리ᄂᆞᆫ고, 눌 위ᄒᆞ야 고이 홀고, 짓ᄂᆞ니 한숨이오, 디ᄂᆞ니 눈믈이라.' 라는 표현을 통해 님과 이별하고 창평에 내려와 님에 대한 그리움과 이별에 대한 슬픔으로 보낸다는 극진한 연군지정을 서사에서 담고 있다.

본사에서는 변화하는 계절에 따라 님에게 보내고 싶은 사물을 통하여 화자의 그리운 마음과 변함없는 충정을 표현했다. 또한 계절에 따라 작품의 길이에 변화를 주었는데 봄과 가을이 각각 7행, 여름과 겨울이 각각 12행으로 봄, 가을보다 여름, 겨울의 사연이 상대적으로 많이 길어진 것은 무엇보다 긴긴 여름 해와 긴긴 겨울밤의 그

21) 김진영, 「<사미인곡>의 작품세계」,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집문당, 1992), p.652.
22) 이상보, 『한국가사문학의 연구』(형성출판사, 1974), pp.264~271.

리움의 고통이 더욱 절실하였기 때문이다.[23]

뎌 梅花(매화) 것거 내여	님 겨신ᄃᆡ 보내오져
님이 너를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춘사(17행 ~ 23행)에서는 매화를 님께 보내고 싶다고 하였다. 매화는 절개를 의미하므로 자신의 변함없는 절개를 님께서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鴛鴦錦(원앙금) 버혀 노코	五色線(오색선) 플텨내여
금자히 견화이셔	님의 옷 지어내니
手品(수품)은 ᄀᆞᆺ니와	制度(제도)도 ᄀᆞ줄시고
珊瑚樹(산호수) 지게 우히	白玉函(백옥함)의 다마 두고
님의게 보내오려	님 겨신ᄃᆡ ᄇᆞ라보니

하사(24행 ~ 35행)에서는 원앙금 오색선으로 옷을 지어 님께 보내고 싶다고 하였다. 이는 곧 님께 지극한 정성을 다하고픈 마음이다. 그러나 님께서 자신을 알아보실지 걱정하는 화자의 모습은 님께 지극한 정성을 다하고 싶은 마음은 가득하나 님이 다시 자신을 사랑해 주실지에 대한 염려를 나타내고 있다.

淸光(청광)을 픠워 내여	鳳凰樓(봉황루)의 븟티고져
樓(누) 우히 거러 두고	八荒(팔황)의 다 비최여
深山窮谷(심산궁곡) 졈	낫ᄀᆞ티 밍그쇼셔

추사(36행 ~ 42행)에서는 밝은 달빛을 님께 보내어 온 세상의 어두움과 그리움, 고통까지도 환하게 씻어주기를 소망하는 심정을 담았다.[24]

陽春(양춘)을 부처 내여	님 겨신ᄃᆡ 쏘이고져
茅簷(모첨) 비췬 히를	玉樓(옥루)의 올리고져

23) 김진영, 앞의 논문, p.650.
24) 위의 논문.

동사(43행~54행)에서는 추운 겨울 날씨에 님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따뜻한 봄볕을 님에게 보내주고 싶다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님에 대한 염려와 그리움이 묻어난다.

결사(55행~63행)에서는 님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으로 인해 병을 얻게 된 화자의 모습과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화자는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가 되어 님을 따르겠다고 한다.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출하리 ᄉᆡ어디여	범나븨 되오리라
곳나모 가지마다	간ᄃᆡ죡죡 안니다가
향 므틴 놀애로	님의 오ᄉᆡ 올므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ᄅᆞ셔도	내 님 조ᄎᆞ려 ᄒᆞ노라

화자가 병에 걸린 것은 님의 탓이지만 화자는 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까지 님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님을 쫓아다니겠다는 굳은 일편단심을 결사에서 표출하였다.

<사미인곡> 속 화자는 서사에서부터 결사에까지 오로지 님에 대한 생각과 염려, 사랑으로 충만한 태도를 갖추고 있다. 사랑하는 님과 이별로 인한 자신의 외로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님이 나를 받아주실지에 대한 염려를 하지만 님에 대한 태도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님에 대한 사랑을 전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 결사 부분에서는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는 마음을 표현하여 자신의 지극한 사랑을 표현하였다. 결과적으로 작가인 정철이 선조를 향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을 자신의 충성과 창평에서 지내는 동안 임금을 향한 그리움의 마음을 절절하게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속미인곡> 역시 정철의 작품으로 <사미인곡>의 미진한 것을 이어서 지은 작품으로 <사미인곡>의 속편이다. 정철은 <속미인곡>에서 갑녀와 을녀 두 여인을 등장시켜 이 두 여인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구성하여 내면의 연군지정을 표출하였다. 갑녀는 을녀에게 질문을 던져 그의 하소연을 유발해 내고 그의 하소연을 종결짓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반면 을녀는 갑녀의 질문에 응해 푸념어린 신세한탄을 곡진히 피력함으로써 작품의 정서적 분위기를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25] 그리하여 한때는 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으나 이제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자기의 운명을

서러워하면서 한없이 님을 그리워하다 죽어서 달이라도 되어 님 계신 곳을 가보고 싶다는 지극한 심정을 읊고 있다.[26]

<속미인곡>은 총 48행 96구로 구성되어 갑녀와 을녀의 대화로 이어지는데 그 대화의 순서에 따라 갑녀-을녀-갑녀-을녀-갑녀 이렇게 5단락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1단락(1행~3행)은 갑녀의 말로 대화의 시작을 이끌어내는 역할과 함께 을녀라는 여인의 처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天上(천상) 백옥경을	엇디ᄒᆞ야 離別(이별)ᄒᆞ고
ᄒᆡ 다 뎌 져믄 날의	눌을 보라 가시ᄂᆞᆫ고

적강화소를 사용하여 을녀가 본래는 고귀한 신분이었음을 나타냈다. 과거 자신이 있었던 곳을 '천상 백옥경'이라 했는데 이는 임금이 계신 곳을 말하며 비록 과거에는 고귀한 존재였을지 몰라도 현재 임금의 곁에 있을 수 없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는 그만큼 님이 작자에게 절대적인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다.

2단락(4행~13행)에서 을녀는 이별의 원인을 자신의 잘못과 하늘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내 몸의 지은 죄	뫼ᄀᆞ티 싸혀시니
하ᄂᆞᆯ히라 원망ᄒᆞ며	사ᄅᆞᆷ이라 허믈ᄒᆞ랴
셜워 플텨 헤니	造物(조물)의 타시로다

비록 님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님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모든 잘못을 자신과 운명의 탓으로 돌리는 화자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님이 자신의 삶의 이유이자 절대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을녀의 대답을 들은 갑녀는 을녀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며 마음에 맺힌 일을 풀 수 있도록 더 깊은 이야기를 이끌어낸다.

---

25) 이문규, 「<속미인곡> 소고 」,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집문당, 1992), p.658.
26) 문흥구, 「송강의 연군시가연구」, 『새국어교육』 62권(한국국어교육학회, 2001), p.339.

글란 싱각마오　　미친 일이 이셔이다

갑녀 또한 작가인 정철의 분신으로서 위 3단락인 갑녀의 대화는 모든 잘못을 뒤집어쓰고 인내하고 있는 희생적인 을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님을 거스를 수 없고 자신이 처하게 된 상황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잘못을 돌릴 수도 없는 처지에서 자신의 억울함과 님을 향한 결백한 마음을 의지적으로 보여주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다. 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자신은 떳떳하다는 말을 님께 전하고 싶어하는 화자의 내면 의식을 갑녀라는 인물로 표출하고 있다.

4단락(15행~47행)에서는 님에 대한 을녀의 절대적인 사랑이 표현된다. 춘한고열(春寒苦熱)과 추일동천(秋日冬天)에 님이 어떻게 지내실지 걱정하고 죽조반, 조석 뫼, 기나 긴 밤의 잠까지 화자는 걱정한다. 하지만 님의 소식은 알 수가 없어서 마음은 더욱 애가 타고, 이러한 마음을 다잡기 위해 물가에 가 뱃길이라도 보려 하지만 어수선한 마음은 여전히 님의 소식을 향하고 있다. 이리저리 방황한 화자는 잠깐의 꿈에 님을 만나지만 정을 다하지 못한 채 잠에서 깨어난다. 결국 을녀는 살아서는 이루지 못할 님에 대한 사랑을 차라리 죽어서 낙월이 되어 님이 계신 창을 비추고 싶다고 한다.

님을 뫼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믈ㄱ튼 얼굴이　　편ᄒᆞ실 적 몃 날일고
春寒苦熱(춘한고열)은　　엇디ᄒᆞ야 디내시며
秋日冬天(추일동천)은　　뉘라셔 뫼셧ᄂᆞᆫ고
…(중략)…
출하리 ᄉᆡ여디여　　落月(낙월)이나 되야 이셔
님 겨신 窓(창) 안히　　번드시 비최리라

이별한 님에 대하여 화자는 자식을 돌보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의 마음처럼 지극 정성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님의 안부와 관련된 모든 일을 염려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님의 소식조차 알 수가 없기에 더욱더 화자의 마음은 애가 탄다. 이것은 님의 곁에서 님을 보필하고 싶으나 당쟁에서 밀려난 정치인의 비애일 것이다. 작품 안에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현실의 요소를 구름, 안개, 바람, 물결로 비유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이루기 어려운 자신의 충정을 작가는 작품 안에서 죽

음을 초월한 일편단심으로 표현했다.

각시님 돌이야 ᄀᆞ니와　　구즌 비나 되쇼셔

위 부분은 마지막 5단락(48행) 부분으로 갑녀가 을녀에게 하는 위로의 말이다. 달이 되어 님의 창을 비추겠다는 을녀의 말에 갑녀는 이처럼 달이 아닌 궂은 비가 돼라고 한다. 달은 님에 대한 애정과 그리움의 표상이라면 궂은 비[27]는 달보다는 쓸쓸함과 애처로움을 자아내는 소재로 님에게 버린 받은 여인이지만 오로지 님을 걱정하고 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으로 슬픔에 잠겨있는 여인의 입장을 표상한다. 즉 절대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을녀의 모습이 달이라면 사랑하는 님과 이별하여 살아가는 안타까운 을녀의 모습은 궂은 비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갑녀는 마지막에 애처로워 보이는 을녀를 위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작가인 정철이 님을 볼 수도, 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도 없는 처지에서 님에게 전해 줄 수 없는 연군지정을 토로하고 있는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담아 자신에게 건네는 심적 위로의 말일 것이다.

<속미인곡>에는 떠나간 님에 대하여 원망과 투정 대신 곧은 사랑만이 존재하는데 이는 연인의 이별을 다룬 단순한 작품이 아닌 작가 정철이 임금을 상정하고 지었다는 점에서 가능할 수 있었다.[28] 임금은 원망의 대상이 아닌 절대적인 충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속미인곡> 속의 화자는 오매불망 그리운 님에 대한 생각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기보다는 견뎌가고 있다. 자신의 전부였던 님을 잃은 화자에게는 삶의 의욕과 의미가 없다. 오직 님의 곁에서만 가치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의 방법을 택해서라도 님에게 가고자 하는 일편단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곧 임금에 대한 정철의 강한 충정을 나타낸 것이다.

---

27) 궂은 비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에 따라 송옥의 고당부에 나오는 무산지몽의 비와 달빛보다는 긴 시간의 이미지, 처량하고 구슬픈 분위기 조성, 청각적이고 제한적이며 긴 시간을 눈물로 임을 자극할 수 있는 것으로 을녀의 간절한 심정을 보다 잘 나타내 준 것, 임에 대한 원망과 雲雨之情의 표상으로 세속적이며 인간적인 감정을 표출한 것이라는 등 여러 해석이 있다. 박춘우, 「속미인곡 연구」, 『대구어문논총』 14집(대구어문학회, 1996).

28) 이문규, 앞의 책, p.664.

2. 견적형 시가

1) 신충의 <원가>

<원가>는 신라 효성왕 때(737년)[29] 신충이 지은 향가로 원래는 10구체이나 후구가 없는 형태로 현재는 8구체로 전하고 있다. 본문과 유래는 『삼국유사(三國遺事)』 권5 <신충괘관(信忠掛冠)>에 실려 전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효성왕이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에 현명한 신하 신충과 함께 궁중 뜰의 잣나무 아래서 바둑을 두다가 말하기를,

"뒷날에 내가 결코 그대를 잊지 않을 것을 이 잣나무를 두고 맹세하겠다."

고 하니 신충은 일어나 절을 했다. 몇 달이 지나 왕으로 즉위하고 공로가 있는 신하들에게 상을 줄 때, 신충을 잊고 차례에 넣지 못했다. 신충은 이를 원망하여 노래를 지어 잣나무에 붙였다. 그랬더니 잣나무가 갑자기 누렇게 되었다. 왕이 이상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그 잣나무를 살펴보도록 하였더니 나무에서 노래를 찾아내 바쳤다. 왕이 크게 놀라면서

"정사가 너무 복잡하고 바빠서 공신을 잊었구나."

하고 신충을 불러서 벼슬을 주었다. 그러자 그 나무는 다시 살아났다. 노래는 이러하다.[30]

物叱好支栢史
秋察尸不冬爾屋支墮米
汝於多支行齊敎因隱
仰頓隱面矣改衣賜乎隱冬矣也
月羅理影支古理因淵之叱
行尸浪 阿叱沙矣以支如支

29) 창작연대에 대하여서는 효성왕 원년(737), 효성왕 2년(738), 경덕왕대 등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자세히 논하지 않으며, 배경설화와 관련하여 효성왕 원년(737)이 가장 적합하게 생각되어 원년으로 한다.

30) 孝成王潛邸時, 與賢士信忠, 圍碁於宮栢樹下, 嘗謂曰: "他日若忘卿, 有如栢樹." 信忠興拜. 隔數月, 王卽位, 賞功臣, 忘忠而不第之. 忠怨而作歌, 帖於柏樹, 樹忽黃悴, 王怪使審之, 得歌獻之, 大驚曰: "萬機鞅掌, 幾忘乎角弓!" 乃召之賜爵祿, 柏樹乃蘇. 歌曰:

皃史沙叱望阿乃
世理都之叱逸烏隱第也
後句亡[31]

작품의 원문 마지막 9구에서 '後句亡'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원가>가 원래는 10구체임을 알 수 있다. 원문의 현대어 풀이는 연구자마다 차이점을 보이는데 여기서는 김완진의 풀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質 좋은 잣이
가을에 말라 떨어지지 아니하매,
너를 重히 여겨 가겠다 하신 것과는 달리
낯이 변해 버리신 겨울에여.
달이 그림자 내린 연못 갓
지나가는 물결에 대한 모래로다
모습이야 바라보지만
세상 모든 것 여희여 버린 處地여.[32]

<원가>[33]는 배경설화에 대한 기록에서처럼 잣나무가 중요한 소재임에 착안하여 <(백수가)栢樹歌>, <잣나무가>, <잣나모 노래> 등으로 부르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王卽位賞功臣, 忘忠而不第之, 忠怨而作歌"의 '忠怨而作歌'에 착안하여 일반적으로 <원가>라고 부른다.[34] 학자들이 <원가>라고 부르는 배경에 따르면 이 노래는 임금에 대한 원망이 화자의 주 심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화자는 임금과의 약속을 잣나무에 비유하였다. 또한 "우러르던 낯이 계시온데"라는 표현을 통해 임금과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으나 현재는 약속을 하던 과거와는 다른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다. 5구에서부터는 이처럼 변해버린 현재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다. 달은 우리 문학에서 기다리거나 소망하는 대상을 상징해 왔다.

---

31) 일연, 『삼국유사』 권5, 避隱, 信忠掛冠.
32) 김완진, 『향가해독법연구』(서울대학교 출판부, 1980).
33) <원가>에 대하여서는 배경설화와 관련하여 유창돈, 허영순과 같이 주가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주가 역시 기본적으로 개인의 감정의 발로에서 시작된 것으로 본다. 이런 면에서 <원가>는 주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기본은 임금을 향한 개인의 감정이 담긴 시가인 것이다. 따라서 연군시가의 범주에 포함시켜 논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34) 김성기, 「<원가>의 해석」, 『한국고전시가작품론 1』(집문당, 1992).
----, 「원가의 연구」, 『古詩歌硏究』 12집(한국고시가문학회, 2003), p.56.

<원가>에서 달은 이와 같은 의미에서 '임금'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달이 비친 연못에 있는 모래는 화자라고 할 수 있다.[35] 여기에서 과거 화자에게 굳은 약속을 하던 임금은 하늘에 떠 있는 변치 않는 달의 표상이며, 물가에 그림자 내려 비춰진 달은 약속을 잊고 계신 임금이다. 그리하여 화자는 직접적인 달의 모습을 보는 위치가 아니라 한 걸음 떨어져 물결에 비친 모습을 바라보는 모래인 것이다. 그리고 물결은 과거와 현재가 단절되었음을 나타낸다. 자신이 정성스런 마음으로 섬기던 절대적인 존재이자 자신이 굳게 믿고 있던 대상인 임금이 과거와는 달리 자신을 잊고 지냄은 화자에게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마지막 8구에서 화자는 세상 모든 것을 여희여 버린 처지라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이 구문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화자의 체념적인 심정으로도 해석한다. 시 속의 화자는 자신을 잊지 않겠다고 하던 임금의 약속이 사라진 지금 세상 모든 것을 잃었다고 표현할 만큼 약속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로 강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자신을 잊고 계신 임금에 대한 체념적인 마음보다는 지난날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앞으로도 사랑을 해 주겠다던 약속이 깨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극대화하여 짙게 표현한 것이다. 효성왕이 신충의 <원가>를 보고 그를 등용하자 잣나무가 다시 살아났다는 배경설화에서처럼 이는 임금이 자신을 다시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런 약속이 깨어진 것에 대한 화자의 절망과 더불어 임금을 향한 그리움을 노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원가>의 화자는 과거 자신을 잊지 않겠다는 임금이 현재 자신을 기억하고 잊지 못하자 과거 자신을 바라봐 주던 임금을 회상하며 그리워하고 있다. 임금에 대한 자신의 변치 않는 마음과 변하지 않을 줄 알았던 임금과의 약속을 불변하는 자연사인 '잣나무', '달', '모래'로 대상화하면서 임금을 향한 그리움의 마음을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신충의 <원가>는 작품 내용에서 임금을 표상하는 '님'이라는 표현이나 그 대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문헌에 전하는 배경 설화를 통하여 작품 내용의 대상이 임금을 뜻하고 있으며 화자는 현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있는 화자로서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의 연유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원가>는 연군시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화자의 슬픈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가>는 연군시가 중 견적에 해당한다.

---

35) 위의 책.

2) 정서의 <정과정>

<정과정>은 정서의 작품으로 『악학궤범』에 수록된 노래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前腔) 내님믈 그리ᄉᆞ와 우니다니
(中腔) 山 졉동새 난 이슷ᄒᆞ요이다
(後腔) 아니시며 거츠르신ᄃᆞᆯ 아으
(附葉) 殘月曉星이 아ᄅᆞ시리이다
(大葉) 넉시라도 님은 ᄒᆞᆫᄃᆡ 녀져라 아으
(附葉) 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二葉) 過도 허믈도 千萬 업소이다
(三葉) 믈힛마리신뎌
(四葉) 술읏븐뎌 아으
(附葉) 니미 나ᄅᆞᆯ ᄒᆞ마 니ᄌᆞ시니잇가
(五葉)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36]

고려속요의 작품들이 남녀상열지사라 하여 조선시대에 없어지거나 편집되는 과정을 거친 것에 비해 <정과정>은 충신연주지사라 하여 더욱 중시되어 궁중에서는 전악으로 보중하여 악공 취재에 필수과목으로 삼았으며[37] 기녀는 물론 사대부의 학습대상이 되었다. 고려속요 중 작자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작품이고, 유배 문학의 효시이며 또한 충신연주지사로서 후세에 많이 지어진 연군가의 대종이 된다. 별칭으로 '삼진작' 또는 '향가계 여요'라고도 부른다.[38] <정과정>은 내시랑중 정서가 지은 것이다. 정서는 '과정(瓜亭)'이라 자호하였으며 왕실의 외척과 혼인을 맺어 인종에게 총애를 받았다. 의종은 즉위하자 정서를 고향인 동래에 돌려보내면서 "오늘의 귀향은 조정의 논의에 압박을 받아서이니 오래지않아 마땅히 불러올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정서가 동래에 머문 지 오래 지나도록 소환의 왕명이 오지 않았다. 이에 정서는 거문고를 연주하며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

36) 『악학궤범(樂學軌範)』, 봉좌문고본(蓬左文庫本), 권(卷) 5.
37) 『經國大典』 禮典.
38) 일반적인 고려속요의 작품들처럼 '분장 혹은 분연'이 되어 있지 않고, 후렴구가 보이지 않으며 8행과 9행을 하나로 묶어서 한 행으로 보면 전체가 10행으로 마치 향가의 10구체과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 또한 마지막 낙구에 '아소'와 같은 감탄사가 있기 때문에 향가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향가계 여요라고도 부른다.

<정과정>은 <원가>와 달리 작품 내용 안에서 시적대상인 '님'과 시적화자인 '나'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는 개인의 감정이 향가에서 고려속요로 오면서 내면적 경향에서 외형적으로, 관조적 성찰에서 격정적 표출로 정서가 표출됨을 알 수 있다.[39] <정과정>은 시적대상인 '님'과 창작 시기와 장소에 대한 논의[40]가 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도 '연군'을 주제로 하므로 창작 시기와 시 내용에서 다루는 '님'이 누군가에 대해 잠깐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자들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정과정>을 창작한 장소는 동래와 거제이며 그에 따라 시기도 의종이 재위하던 때와 폐위하던 때로 나뉜다. 또한 연모의 대상 역시 유배를 보내었던 의종과 정서를 유배에서 풀어준 명종으로 나뉜다. 정서는 공예태후의 동생 남편으로서 의종에게는 이모부였다. 이모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서를 유배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정과정>의 배경설화인 『고려사』에는 조정의 압박 논의에 따른 것이라 했는데, 자세한 이유는 『고려사절요』에 기록되어 있다. 공예태후에게는 다섯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 차남인 대령후 경(暻)과 정서가 가깝게 지냈다는 것이 배경이 되어 김존중, 정함 세력이 이를 빌미로 정서를 모함하여 유배를 가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인종은 후계자를 정할 때 장남인 의종의 성품을 문제 삼아 차남인 대령후 경(暻)을 후계자로 삼으려 하였으며 공예태후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41]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의종이 왕좌에 오르게 되었으며 결국, 왕좌에 오른 후에도 의종의 눈에 동생 대령후 경(暻)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이자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존재였을 것이다. 그러한 대령후 경(暻)과 정서가 가깝게 지낸다는 것은 정서가 어떠한 죄를 지었건 짓지 않았건 의종의 개인적인 면에서는 죄 아닌 죄가 된 것이다. 이는 훗날 의종이 대령후 경(暻)을 파하고 다시 천안부까지 귀양 보내는 사건에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김존중, 정함의 세력들은 이를 놓치지 않고 자신들의 세력과 사이가 좋지 않던 정서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됨을 알고 의종에게 정서를 모함하게 되었다. 동생을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보고, 불안하고 시기의 대상으로 여

39) 이형대, 「<원가>와 <정과정>의 시적인식과 정서」, 『한성어문학』 제18집(한성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9), p.116.

40) 이가원(1953)은 장소는 거제이고 창작시기는 의종이 정중부의 난으로 쫓겨난 의종 24년 9월부터 정서가 사면되던 의종 24년 10월 사이로 보며, 연모의 대상은 의종이라 하였다. 권영철은(1968) 장소는 동래이고 창작시기는 의종 10년(1156)으로 연모의 대상은 의종이라 하였다. 김쾌덕은(1983)은 장소와 시기는 거제와 의종 24년으로 이가원과 같게 보았으나 연모의 대상은 명종이라 하였다. 박노준(1990)은 장소는 동래이고 창작 시기는 의종 6년~8년으로 연모의 대상은 의종이라 하였다.

41) 박노준, 「<정과정>의 역사적 배경」, 『고려가요의 연구』(새문사, 1990).

겨왔던 의종에게는 그러한 모함이 진실과 거짓의 여부를 떠나 훗날 큰 위험 요소로 다가왔을 것이다. 결국 이모부이지만 유배를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어쩌면 정서 개인에 대한 불만과 벌이 아닌 동생 대령후 경(暻)의 주변 사람을 제거함으로써 대령후 경(暻)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자신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자 함이었을 것이다. 정서를 유배 보내면서 의종이 정서에게 조정의 논의 압박에 의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훗날 다시 등용을 약속한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다소 인간적인 면에서 공예태후와 이모부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정서는 동래로 유배를 가게 되고 거제를 거쳐 명종이 즉위하여 풀려나기까지 20년간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정서가 <정과정>을 지은 장소는 권영철의 의견처럼 동래이며 동래에서 유배생활을 하던 어느 시기에 지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시의 연모대상은 의종일 것이다. 정서가 유배에서 풀려난 시기로 연모 대상을 명종으로 추정하기도 하지만 정서가 풀려난 후 정서의 행적이 전무한 것도 명종이 연모대상이 아님을 반증하며, 배경설화에서처럼 노래를 지어 부르니 왕이 꿈에 감응하여 소환되었다는 것은 <정과정>이 궁중음악으로 채택되어 충신연주지사로서의 영험을 강조하느라 조작된 측면이 큰 것이라 여겨진다.[42] 정서는 자신이 대령후 경(暻)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 의종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인지 모르고 순수하게 이모부와 조카로서 가깝게 지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 후계자 자리를 놓고 의종과 대령후 경(暻) 사이의 일을 알았다면 의종이 왕좌에 오른 후에 대령후 경(暻)과 친하게 지낼 수 있었을까? 유배를 가면서 정서는 의종이 곧 다시 소환하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생각보다 길어지자 시에 이러한 자신의 하소연을 담아 지었을 것이다.

<정과정>은 임금(의종)을 대상으로 하여 버림을 받아 유배를 간 신하(정서)가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며 자신을 모함에 빠뜨린 자들에 대한 원망과 임금에 대한 자신의 변함없는 마음과 그리움을 담아 표현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견적에 분류함을 밝히며, 그에 따른 내용을 살펴본다.

<정과정>의 내용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서사는 1~2행으로 자신의 현재의 처지에 대해 얘기를 하고 본사(3~9행)에서는 임금에게 자신의 결백과 변치 않을 충성을 얘기하며 마지막 결사(10~11행)에서는 님에 대한 사랑을 애원하고 있

42) 양태순, 「<정과정>의 종합적 고찰」, 『한국고전시가작품론 1』(집문당, 1992), p.247.

다.

화자는 자신의 슬픔을 임이 그리워 우는 두견새에 견주어 비유하면서 슬픔의 상황이 극에 달하였음을 객관적 상관물을 빌어 표현하고 있다. 두견새는 전통적으로 한(恨)을 상징하는 새로서 시적 화자의 슬픔과 한(恨)을 자아내는 대상으로 그려진다. 님을 여의고 울고 있는 두견새의 모습은 시각적인 이미지만으로도 처량하고 가엾다. 그것은 시각적인 이미지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며 소리 내어서 울고 있는 것으로 청각으로까지 전환이 되기에 화자가 님을 잃고 슬퍼하는 상황은 제 3자로 하여금 마음의 동요를 불러온다.

본사에 가서 화자는 서사에서 자신이 슬픈 처지에 처한 연유에 대해 설명한다. 하늘은 신성한 곳이며 하늘에 떠 있는 달과 별 또한 우리 선조들은 신성시해왔다. 달, 별은 신성한 존재이자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는 자연물이다. 이러한 신성한 의미를 지니는 대상만은 자신의 결백을 알고 있다고 함으로써 자신의 청렴결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다만 새벽의 달과 별이라는 것은 화자가 처한 상황이 어두운 현실 속에 있음을 말해 주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화자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어둡기는 하나 진실은 있는 법,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힘 즉, 신적인 존재와 같은 분은 자신의 결백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왕에게 자신의 결백함과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서는 왕보다 더 신성시하는 대상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대상을 하늘에서 찾아 호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결백을 호소한 화자는 이제 임금에게 자신의 충성을 다짐한다. 지금 비록 임금과 떨어져 있지만 죽어서도 님과 함께 하겠다는 강인한 충절의식을 바치고 있다. 죄가 없음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배에 간 상황이지만 여전히 임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은 간절한 화자의 마음을 더욱더 극대화로 이끌고 있다. 또한 5행에서 죽음의 이미지 뒤에 있는 감탄사 '아으'는 처절하고도 격화된 감정의 원초적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43]

죽음 후에도 님과 함께 하고 싶을 만큼 자신은 떳떳하며 그러한 마음을 화자는 이제 직접적으로 재차 강조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을 슬퍼하고 있다. 자신을 곧 소환하겠다는 임금의 약속을 생각하며, 임금을 향한 진한 그리움의 마음은 과거 자신을 사랑하는 임금의 마음이 거짓이었나 하는 서운한 마음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가 임금을 얼마만큼 믿고 있었던가를 짐작할 수

43) 이형대, 앞의 논문, p.115.

있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 화자는 직접적으로 님에게 원하는 바를 제시한다. 그것은 자신의 이러한 결백함을 알아주시어 다시금 자신을 예전처럼 사랑해 달라는 것이다.

<정과정>은 앞서 다루었던 향가 <원가>와는 사뭇 드러내는 감정의 표출 방식이 상이함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원가>에서는 비유를 사용하여 님에 대한 그리움을 정서적으로 표현했다고 하면 <정과정>에서는 님에 대한 감정을 거침없이 직접적으로 표현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어조에 있어서도 평서형 종결어미를 사용한 시적 진술에서는 자신의 결백을, 의문형과 감탄형을 사용한 종결형 어미에서는 강한 그리움, 서운함, 애정의 촉구를 나타내고 있다.[44]

문헌의 기록과 같이 정서는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당시 임금인 의종에게는 달갑지 않은 동생 대령후 경(暻)과의 친밀한 인간관계로 인하여 억울하게 유배를 가게 되었고, 떠날 당시 곧 소환하겠다고 한 임금의 언약을 굳게 믿고 유배지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의 언약이 지켜질 날은 점점 멀어져가고 있었다. 이에 정서는 자신의 억울함과 결백함을 호소하고 임금에 대한 진한 그리움을 달랠 길은 시로 표현하는 길밖에 없었을 것이다. 고려와 조선의 뜻있는 사대부들이 이 노래를 '충신연주지사'라 하고, 나아가 충신연주지사의 대명사격인 '이소(離騷)'에 비견한 것은 정서의 고결한 지조와 꿋꿋한 인품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이다.[45]

3) 장경세의 <강호연군가>

<강호연군가>는 사촌(沙村) 장경세의 작품으로 전 6곡, 후 6곡으로 전체 12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의 후기에서 그는 자신이 퇴계의 <도산육곡가>를 본따서 지은 작품이라고 밝히고 있다.[46] 그러나 퇴계의 작품을 본따서 작품을 지었다고 하지만 그 형식을 취하되 내용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황은 <도산십이곡> 첫

44) 위의 논문, p.116.
45) 정경주, 앞의 논문.
46) "余少時, 因友人李平叔, 得見退溪先生陶山六曲歌. 意思眞實, 音調淸絶, 使人聽之, 足以興起其善端, 蕩滌其邪穢, 眞三百篇之遺旨也, …中略… 頃者適到月波軒, 偶得印本, 乃前所謂陶山六曲也. 一番末乃自言其志." 장경세, 『少村集』권2, 『한국문집총간』 속6(민족문화추진회, 2005).

수에서 나아감의 길과 물러남의 길 중 물러남의 길을 선택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지만 <강호연군가>의 첫 수는 강호로 물러난 상황에서도 현실을 잊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준다.[47] <강호연군가>는 전육곡은 애군우국지성에 대한 내용이며 후육곡은 존주척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연군지정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전육곡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瑤空애 둘 붉거늘 一張琴을 빗기 안고
欄干을 디혀 안자 古陽春을 ᄐᆞ온마리
엇더타 님 향ᄒᆞᆫ 시름이 曲調마다 나ᄂᆞ니

달 밝은 하늘 아래 화자는 거문고를 안고 고양춘을 타고 있다. 고양춘은 양춘곡으로 생기발랄한 봄 풍경을 맑은 선율과 경쾌한 리듬으로 표현한 곡[48]이다. 그러나 화자는 경쾌한 곡을 연주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기쁘지 않고 오히려 시름을 느낀다. 그것은 자신이 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로 세상과 님에 대한 근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자는 현재 평온한 삶에도 전혀 즐겁지가 않다.

紅塵의 ᄭᅮᆷ ᄭᅵ연디 이십년이 어제로다
綠楊芳草애 졀로 노힌 ᄆᆞ리 되여
時時히 고개를 드러 님자 그려 우노라

세상을 떠나 자연 속으로 온 지 화자는 20년이나 되었지만 때때로 고개를 들어 님을 그려 운다고 하여 오랜 세월 동안 님에 대한 그리움과 근심을 안고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시져리 하 슈샹ᄒᆞ이 ᄆᆞᅀᆞᆷ을 둘 듸 업다
喬木도 네 ᄀᆞᆺ고 세신도 ᄀᆞ자시되
議論이 여긔 져긔 ᄒᆞ이 그를 몰나 ᄒᆞ노라

전육곡 3수에서는 화자가 오랜 세월 동안 님을 그리워하면서도 자연 속에 묻혀

47) 이상원, 「17세기 육가형 시조 연구 - 장경세의 <강호연군가>와 이중경의 <어부별곡>」, 『한국언어문학』 65집(한국언어문학회, 2008), p.244.
48) 위의 논문.

지낼 수밖에 없는 배경이 나타나 있다. 화자는 시절이 하수상하여 마음을 둘 곳이 없다고 하였다. 장경세가 <강호연군가>를 지을 당시는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면서 광해군을 옹립하려 했던 대북파가 성공을 거둔 뒤 영창대군을 옹립하려 했던 소북파와 이를 지지한 서인과 남인 또한 제거하기 시작하여 조정은 혼란스러웠다. 서인에 속했던 장경세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 아래 은거의 삶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엇그제 꿈 가온대 廣寒殿의 올라가이
님이 날 보시고 ᄀᆞ쟝 반겨 말ᄒᆞ시데
머근 ᄆᆞ음 다 숣노라 ᄒᆞ이 날 새ᄂᆞᆫ 줄 모ᄅᆞ로다

위에서 화자는 현실에서 만나지 못하고 그리워하던 님을 꿈에서 만나 마음속에 하고픈 말을 다하였다고 한다. 님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과 심중에 쌓인 회포를 풀고 싶은 소망을 현실에서 이룰 수 없음을 대신하여 꿈에서나마 해소하고 있는 모습이다.

漢文이 有道ᄒᆞ이 賈太傅를 내 운노라
當時 事勢야 그리 偶然ᄒᆞᆯ가
엇더타 긴 ᄒᆞᆫ숨 긋ᄐᆡ 痛哭조차 ᄒᆞ던고

宋玉이 ᄀᆞ을ᄒᆞᆯ 만나 므스 이리 슬프던고
寒霜白露ᄂᆞᆫ ᄒᆞᄂᆞᆯ히 긔운이라
이 내의 ᄂᆞ몬 져 근심은 봄ᄀᆞ을이 업서라

5수와 6수에서는 가의와 송옥이라는 두 인물을 비교하여 자신의 시름이 더 깊음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가의에 대해서는 그 때는 도(道)가 있었지만 지금은 도(道)조차 없음을 들어 말하였고, 송옥에 대해서는 송옥이 가을을 만나 슬퍼했다는 고사를 들어 자신의 근심은 봄, 가을이 따로 없다 하여 누구보다 나라와 임금을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49]

장경세는 혼란스러운 정국을 뒤로하고 초야에 머무르는 삶을 택하였으나 초야에

49) 위의 논문.

서 마냥 유유자적한 삶을 보낼 수 없었음을 위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다. 비록 몸은 떠나왔지만 뛰어난 자연도 연군에 대한 그리움을 막을 수 없었고, 나라에 대한 근심 또한 떨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작가는 <강호연군가> 안에서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상황으로 말미암아 조정을 떠나와서 애군우국지성을 읊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슬픈 처지에 대해 토로하고 연군지정을 표현했다.

4) 윤선도의 <견회요>

슬프나 즐거오나 올타 ᄒᆞ나 외다 ᄒᆞ나
내 몸의 ᄒᆡ올 일만 닫고 닫글 뿐이언뎡
그 밧긔 녀나믄 일이야 분별ᄒᆞᆯ 줄 이시랴.

내 일 망녕된 줄을 내라 ᄒᆞ야 모ᄅᆞᆯ손가
이 ᄆᆞ음 어리기도 님 위ᄒᆞᆫ 타시로쇠
아ᄆᆡ 아ᄆᆞ리 닐러도 임이 혜여 보쇼셔.

秋城 鎭胡樓 밧긔 우러 녜는 뎌 시내야
므음 호리라 晝夜의 흐르ᄂᆞᆫ다
님 向ᄒᆞᆫ 내 뜯을 조차 그칠 뉘ᄅᆞᆯ 모르ᄂᆞ다.

뫼ᄒᆞᆫ 길고길고 믈은 멀고멀고
어버이 그린 뜯은 만코만코 하고하고
어듸셔 외기러기ᄂᆞᆫ 울고울고 가ᄂᆞ니.

어버이 그릴 줄을 처엄븟터 아란마ᄂᆞᆫ
님군 向ᄒᆞᆫ 뜯도 하ᄂᆞᆯ히 삼겨시니
眞實로 님군을 니ᄌᆞ면 긔 不孝인가 녀기롸.[50]

<견회요>는 윤선도(1587~1671)의 작품으로 광해군 때 권신 이이첨의 횡포를 비판한 병진소(丙辰疏)를 올렸다가 함경도 경원에 유배되어 있을 당시 지은 것이

50) 이형대·이상원·이성호·박종우, 『국역 고산유고』(소명출판, 2004).

다.

1수에서는 슬프거나 즐겁거나, 옳거나 그르거나 오로지 자신을 수양하며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할 뿐 그 외의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여 화자의 강한 신념이 나타나 있다. 2수에서는 상소를 올렸던 행동에 대해서 자신에게 해가 될 줄 알았지만 임금을 위한 행동이었음을 내세우며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임금께서 헤아려주기를 바란다는 화자의 간절한 마음이 그려져 있다. 3수에서는 주야로 흐르는 시냇물에 님을 향한 화자의 마음을 비유하여 그침이 없는 자신의 충성심을 표현하였다. 4수에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울고 가는 외기러기에 이입되어 효를 다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화자의 슬픔이 담겨 있다. 5수에서는 유배를 가는 것은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함께 짊어져야 하는 것인 줄 알았으나 님을 향한 뜻은 하늘이 만들어 님을 잊으면 그것도 불효라 하여 임금께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연군지정을 표현하였다.

이처럼 윤선도는 <견회요>를 통해 자신의 굳은 신념과 자신이 한 일은 오로지 임금을 위한 행동이었음을 강조하여 자신의 결백과 유배지에서도 변함없는 충절을 표현했다.

5) 조위의 <만분가>

조위의 작품으로, 조위는 성종 때 호조 참판을 지내는 등 성종의 총애를 받았으나, 연산군이 즉위하고 나서 무오사화(1498)를 만나 의주로 귀양갔다가 다시 순천으로 이배되어 5년간의 유배생활을 끝으로 숨졌다. <만분가>는 안정복의 『잡동산이』 43책에 명기되어 있으며, 유배지인 순천에서 느낀 자신의 비분과 연군에 대한 정을 담은 가사이다. 총 124행 248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성과 관련하여 이상보[51]와 김정주[52]는 3단락으로, 박일용[53]은 5단락, 김주곤[54]은 9단락으로, 최상은[55]은 13단락으로 나누고 있다. 이처럼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고 있는 것

51) 이상보, 『韓國歌辭文學의 硏究-前期歌辭를 中心으로』(형설출판사, 1974).
52) 김정주, 「만분가연구」, 『인문과학연구』 14호(조선대 인문과학연구소, 1992).
53) 박일용, 「<만분가>의 형상화 형태-연군적 정서와 발분적 정서의 교합 양상-」,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집문당, 1992).
54) 김주곤, 「<조위의 만분가 연구>」, 『영남어문학』 14집(영남어문학회, 1987).
55) 최상은, 「<만분가>와 <사미인곡>의 작품구조와 작가의식」, 『한민족어문학』 15집(한민족어문학회, 1988).

은 작품 안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일관된 정형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작품 속 화자는 여타의 다른 화자처럼 하나의 중심된 정서를 표현하지 않고 제목처럼 다양한 화자의 심정과 태도로 만분을 표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서사, 본사, 결사 3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만분가>에서는 '옥황상제'와 '님'이 등장하는데 '옥황상제'는 조위를 총애해 주었던 성종으로, '님'은 당시의 임금인 연산군으로 볼 수 있다. 서사(1행 ~ 10행)에서 화자는 유배 생활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옥황상제에게 토로하고 싶다고 밝힌다. 이는 성종이 조위를 신임했던 왕으로서, 작가는 그때를 생각하며 성종을 신격화하여 현재의 암담한 상황을 토로하고 싶어한 것이다.[56] 또한 가슴에 쌓인 말을 하고 싶다는 부분은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 대한 암시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玉皇(옥황) 香案前(향안전)의 咫尺(지척)의 나아 안자
胸中(흉중)의 싸힌 말숨 쓸커시 ᄉᆞ로리라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로 옥황상제를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옥황상제는 천상계에 존재하며 화자는 지상계에 존재하고 있다. 천상은 현실에서 갈 수 없는 공간이며 갈 수 없는 거리이다. 천상이라는 공간은 즉 화자와 옥황상제의 좁혀질 수 없는 현재의 거리다. 그러기에 화자는 죽어서라도 옥황상제가 계시는 공간에 도달하고 싶어 하며, 한 번의 죽음으로도 갈 수 없는 곳이라면 억만 번이고도 환생하고, 두견새나 구름이 되어 옥황상제가 계시는 곳에 가 가슴에 쌓인 말을 전하고 싶어 한다.

天上(천상) 白玉京(백옥경) 十二樓(십이루) 어듸매오
오색운 깁픈 곳의 紫淸殿(자청전)이 ᄀᆞ려시니
天門(천문) 九萬里(구만리)를 쑴이라도 갈동말동
ᄎᆞ라리 ᄉᆡ여지여 億萬(억만)번 變化(변화)ᄒᆞ여
南山(남산) 늣즌 봄의 杜鵑(두견)의 넉시 되여
梨花(이화) 가디 우희 밤낫즐 못 울거든
三淸洞裡(삼청동리)의 졈은 한널 구름 되여

56) 이가원, 「萬憤歌 硏究」, 『동방학지』 6집(연세대 동방학연구소, 1963), p.159.

한 번의 죽음이 아닌 여러 번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천상계에 가서 심중에 쌓인 말을 하고 싶어 하는 화자의 태도에서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절박함과 가슴에 맺힌 답답함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본사(11행~120행)에서 본격적으로 화자는 유배생활에서 느끼는 비통함과 님을 향한 그리움에 대한 심중의 말을 늘어놓는데, 먼저 오랜 세월 동안 유배되어 지내온 자신을 굴원과 가의로 비유하여 자신이 처해진 상황에 대해 표현한 뒤, 유배지에서도 변함없는 님에 대한 충성과 그리움을 나타내었다.

五色(오색)실 니음 졀너 님의 옷슬 못 ᄒᆞ야도
바다 ᄀᆞ튼 님의 恩(은)을 秋毫(추호)나 갑프리라
白玉(백옥)ᄀᆞ튼 이 내 ᄆᆞ음 님 위ᄒᆞ여 직희더니
長安(장안) 어제 밤의 무서리 섯거치니
日暮修竹(일모수죽)의 翠水(취수)도 冷薄(냉박)ᄒᆞᆯ샤
幽蘭(유란)을 것거 쥐고 님 겨신 ᄃᆡ ᄇᆞ라보니

화자는 유배지에서 님에 대한 원망이 아닌 유배지에 처한 상황에서도 옷과 유란을 통하여 님에 대한 보은을 하고자 한다. 하지만 화자는 곧 보은조차 할 수 없는 자신의 상황을 깨닫고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가슴에 묻는다. 자신의 마음을 님께 전달할 수 없는 고통은 고스란히 육체적인 쇠약함으로 표출된다.

憔悴(초췌)ᄒᆞᆫ 이 얼굴이 님 그려 이러켠쟈

화자는 본사 서두에서만이 아닌 중간 중간 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 없는 현실에 아파하고 고통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華山(화산)의 우ᄂᆞᆫ 새야 離別(이별)도 괴로왜라
望夫山前(망부산전)의 夕陽(석양)이 거의로다

玉(옥) ᄀᆞᄐᆞᆫ 面目(면목)을 그리다가 말년지고
梅花(매화)나 보내고져 驛路(역로)를 ᄇᆞ라보니
玉樑明月(옥량명월)을 녀보던 ᄂᆞᆺ비친 ᄃᆞᆺ
陽春(양춘)을 언제 볼고 눈비를 혼자 마자

벽해 너븐 ᄀᆞ의　　넉시조차 흣터지니
내의 긴 소매를　　눌 위ᄒᆞ여 적시ᄂᆞᆫ고

ᄒᆞᆫ(恨)이 쌀희 되고　　눈물로 가디 삼아
님의 집 창 밧긔　　외나모 梅花(매화) 되어
雪中(설중)의 혼자 픠여　　枕邊(침변)의 이위ᄂᆞᆫ 듯
月中疎影(월중소영)이　　님의 옷의 빗취어든
어엿븐 이 얼굴을　　네로다 반기실가
東風(동풍)이 有情(유정)ᄒᆞ여　　暗香(암향)을 블어 올려
高潔(고결)ᄒᆞᆫ 이내 싱계　　竹林(죽림)의나 부치고져
ᄇᆡᆫ 낙대 빗기 들고　　ᄇᆡᆫ ᄇᆡ를 혼자 ᄯᆡ워
白溝(백구) 건네 저어　　乾德宮(건덕궁)의 가고지고
그려도 ᄒᆞᆫ ᄆᆞ음은　　魏闕(위궐)의 달녀 이셔
ᄂᆡ 무든 누역 속의　　님 향ᄒᆞᆫ 꿈을 ᄭᆡ여
一片(일편) 長安(장안)을　　日下(일하)의 ᄇᆞ라보고
외오 굿겨 올히 굿겨　　이 몸의 타실넌가

이별의 슬픔을 새와 매화에 이입하여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님이 나를 다시 사랑해 주실 건가에 대한 염려를 하면서도 여전히 님을 향한 마음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의 마음과는 달리 일은 꼬이고 꼬여 풀 수가 없음에 대하여 한탄하고 있다. 마치 님의 은총으로 살아나고픈 반복된 애소를 듣는 것 같아 서정적 자아의 모습이 애처롭고 눈물겹다.[57]

본사에서는 님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우국과 동료애도 나타나 있다.

千層浪(천층랑) ᄒᆞᆫ가온대　　百尺竿(백척간)의 올나더니
無端(무단)ᄒᆞᆫ 양각풍이　　宦海中(환해중)의 니러나이
億萬丈(억만장) 소희 쎄져　　하ᄂᆞᆯ 짜흘 모ᄅᆞ노다
魯(노)나라 흐린 술희　　邯鄲(한단)이 무슴 罪(죄)며
秦人(진인)이 醉(취)ᄒᆞᆫ 盞(잔)의　　越人(월인)이 무음 탓고
城門(성문) 모딘 블의　　玉石(옥석)이 홈ᄭᆡ ᄐᆞ니
ᄯᆞᆯ 압희 심은 蘭(난)이　　半(반)이나 이우레라

57) 류연석, 「萬憤歌의 內容的 考察」, 『고시가연구』 제14집(한국고시가문학회, 2004), p.104.

盜跖(도척)도 셩히 놀고　　伯夷(백이)도 餓死(아사)ᄒᆞ니
東陵(동릉)이 놉픈 작가　　首陽(수양)이 ᄂᆞ즌 작가

사림과 훈구파의 대립으로 인해 무오사화가 발생한 당시는 매우 혼란스럽고, 하루하루 언제 생명의 위협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화자는 "千層浪(천층랑) ᄒᆞᆫ가온대 百尺竿(백척간)의 을나더니 / 無端(무단)ᄒᆞᆫ 양각풍이 宦海中(환해중)의 니러나이"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은 억만장 소희에 빠져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간신과 충신이 구별되지 못한 채, 죄 없는 충신까지 함께 죽음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뒤의 내용 역시 도둑들이 횡행하고 충신이 죽어가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58)

風波(풍파)의 헌 빅 ᄐᆞ고　　ᄒᆞᆷ씌 노던 져뉴덜아
江天(강천) 지ᄂᆞᆫ ᄒᆡ의　　舟楫(주집)이나 무양ᄒᆞᆫ가
밀거니 혀거니　　灩預堆(염예퇴)ᄅᆞᆯ 겨요 디나

위의 부분은 화자 자신을 마치 배를 탄 어부로 비유하면서 당쟁이 심했던 정치 속을 풍파로, 동료들은 함께 배를 타며 노를 젓던 사람들로 비유하면서 동료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다. 우국과 동료애를 나타낸 부분은 동시에 당시의 현실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각이며, 어느 정도 시대적 상황을 짐작 가능하게 해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자는 자신의 사랑을 표현해 보려고도 했으나 자신은 사랑하는 님께 다가가지도 사랑을 표현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여 있으며 현실은 진실을 외면할 만큼 왜곡되어 있고, 자신은 암흑적인 공간에 홀로 떨어져 있다. 화자는 자신의 비극적인 정서를 이제 통탄의 수준으로 토로하기도 한다.

乾坤(건곤)이 病(병)이 드러　　混沌(혼돈)이 죽근 後(후)의
하ᄂᆞᆯ이 沈吟(침음)ᄒᆞᆯ 듯　　貫索星(관색성)이 비취ᄂᆞᆫ 듯
孤情依國(고졍으국)의　　寃憤(원분)만 싸혓시니
ᄎᆞ라리 瞎馬(할마)ᄀᆞ치　　눈 감고 지내고져

58) 최상은, 앞의 논문.

蒼蒼漠漠(창창막막)ᄒᆞ야　　못 미들슨 造化(조화)일다
이러나 저러나　　하늘을 원망ᄒᆞᆯ가

瘴海陰雲(장해음운)의　　白晝(백주)의 흣터디니
湖南(호남) 어늬 고디　　鬼蜮(귀역)의 淵藪(연수)런디
魑魅魍魎(이매망량)이　　쓸커디 저즌 ᄀᆞ의
白玉(백옥)은 므스 일고　　靑蠅(청승)의 깃시 된고
北風(북풍)의 혼자 셔셔　　ᄀᆞ 업시 우는 ᄯᆞᆺ을
하ᄅᆞᆯ ᄀᆞ튼 우리 님이　　젼혀 아니 술피시니
木蘭秋菊(목란추국)에　　香氣(향기)로운 타시런가
婕妤(첩여) 昭君(소군)이　　薄命(박명)ᄒᆞᆫ 몸이런가
君恩(군은)이 믈이 되어　　흘너라도 자최 업고
玉顔(옥안)이 ᄭᆞᆺ이로되　　눈믈 ᄀᆞ려 못 볼로다

위의 두 부분은 제목에 걸맞게 화자의 원통함을 거침없이 내뱉고 있는 부분이다. 화자의 충심을 알아주지 않는 임금을 향해 그는 '건곤이 병이 들었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감히 원망을 드러낼 수 없는 대상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임금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며, 그로 인해 홀로 멀리 유배를 오게 된 자신의 비통함을 토로하고 있다. 진심으로 나라를 위하는 자신이지만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원통함이 가득참은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이러한 원통함과 분함을 누구에게 탓할 수도 없으며, 차라리 눈을 감고 지내는 것이 화자가 할 수 있는 전부이다.

두 번째 부분에서 화자는 자신이 유배 온 곳은 병과 귀신이 많은 곳이며 님은 청승 즉 간신배들에게 둘러싸여 홀로 외롭게 울고 있는 자신을 돌봐주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왕권을 포함한 세계 질서 자체에 대한 원분지정을 노골적으로 토로하고 있다.[59] 또한 반첩여와 왕소군을 통하여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임금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임금을 뵙지도 못하는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노래했다.

<만분가> 속의 화자는 앞서 다룬 부분에서처럼 자신이 처한 비극적인 상황에 대하여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처지다. 외롭고 힘든 유배지에서도 오로지 임금을 향한 마음을 간직했지만 자애로운 임금이 부르는 소리는 언제 들려올지 모르며, 세

59) 류연석, 앞의 논문, p.102.

상은 간신들의 손에 쥐어져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화자는 체념의 정서를 이끌어와 자신의 비통한 정서를 순화시킨다.

太上(태상) 칠위분이　　玉眞君子(옥진군자) 命(명)이시니
天上(천상) 南樓(남루)의　　笙笛을 울니시며
地下(지하) 北風(북풍)의　　死命(사명)을 벗기실가
죽기도 命(명)이요　　살기도 하ᄂᆞ리니
陳蔡之厄(진채지액)을　　聖人(성인)도 못 면ᄒᆞ여
縲絏非罪(유예비죄)를　　君子(군자)인들 어이 ᄒᆞ니

이 몸이 녹가져도　　玉皇上帝(옥황상제) 處分(처분)이요
이 몸이 ᄉᆡ여져도　　玉皇上帝(옥황상제) 處分(처분)이라

ᄀᆞ을 ᄃᆞᆯ 볼근 밤의　　두어 소ᄅᆡ 슬피 우러
님의 귀의 들니기도　　玉皇上帝(옥황상제) 處分(처분)일다

죽고 사는 것은 하늘의 뜻이며 성인도 화를 면치 못하며, 죄가 없는 자도 죄인처럼 처벌을 받는 상황에 군자인들 모면할 수가 있겠는가. 애타는 자신의 목소리가 님의 귀에 들리는 것도 옥황상제의 처분이다. 억울하게 유배지에 오게 되었지만,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유배지의 생활은 화자에게 고달픔 자체다. 오직 님을 위하여 목소리를 내어 보지만 쉽게 그 소리는 님에게 들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전달할 수도 없다. 세상은 간신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예전의 영화로움은 이제 꿈처럼 덧없어졌다. 화자가 기댈 수 있고, 자신의 심정을 다스릴 수 있는 대상은 하늘뿐이다. 그래서 화자는 모든 것은 하늘의 뜻이며 옥황상제의 처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서사에서 옥황상제에게 하소연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비통한 심정에 쌓인 화자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님에게도 버림 받은 화자를 감싸줄 수 있는 분이 옥황상제이기 때문이다. 옥황상제는 자신의 가슴 속 깊이 쌓인 회포를 들어줄 수 있으며,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다. 그래서 화자는 결국 자신의 목숨까지 내맡기고 있다.

어와 이 내 가슴
산이 되고 돌이 되어　　어듸 어듸 사혀시며

비 되고 물이 되어　　어듸 어듸 우러 녤고
아모나 이 내 뜻　　알 니 곳 이시면
百歲交遊(백세교유)　　萬世相感(만세상감) ᄒᆞ리라

화자는 본사에서 임금이 해배(解配)라는 보은을 내려주기를 기다리며, 모든 것이 옥황상제의 처분에 달려있다고 체념도 해보았다. 그러나 옥황상제는 신격화된 대상이지 현실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아니다. 그래서 님에 대한 충절과 연모의 정이 잘 투영되지 못하고, 원한에 쌓인 자신의 심정을 물을 길이 없음을 안타까워 하였다.[60] 또한 님이 다시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회의와 번민이 끝없이 작용하여 "옥황 향안전의 지척의 나아 안자 흉중의 싸힌 말슴 쓸커시 ᄉᆞ로리라"고 한 서사 내용이 충족되지 않았을 것이다.[61] 화자는 결사(120행~124행)에 가서는 기대할 수 없는 연군에 대한 정을 향하여 자신의 뜻을 알아주는 이가 있으면 백세교유 만세상감하고 싶다는 소망을 밝힌다.

<만분가>는 끊임없는 당쟁으로 인하여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한 정치인이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느낀 좌절과 고통을 나타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임금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화자로서, 힘든 유배생활 속에서도 님을 향한 충절을 읊으며, 군은이 내려지기를 기다리는 유가적인 사대부의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만분가>는 연주지사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형식 및 내용에 있어서 연주지사의 형상이 일관되게 유지되지 않고 있다. 이는 작가가 자신을 죽음으로까지 밀어 넣은 현실적 정치질서 아래서 불안과 좌절을 느끼기 때문이다.[62] 세상에 대한 비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절망스러운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한탄을 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옥황상제를 통하여 해소해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어떠한 것으로도 해소할 수 없는 답답한 심중의 회포를 풀어줄 수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찾는다. <만분가>의 화자가 임금에 대한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시종 그리움과 애정으로만 충만할 수 없었던 것은 세력다툼에서 밀려난 절망적인 현실 속에 놓인 화자로서, 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희망적인 미래를 향한 의지적인 모습을 보이는 화자가 아닌 현실 문제의 해결보다는 체념적이고, 피세속적인 모습으로 절망적인 현실에서 울부

60) 류연석, 위의 논문, p.105.
61) 박일용, 앞의 논문, p.616.
62) 위의 논문, p.619.

짖고 있는 화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조우인의 <자도사>

<자도사>는 조우인(1561~1625)이 1621년(광해군13)에 제술관으로 부름을 받고 서울에 올라와 인목대비가 유폐된 서궁의 황폐함을 보고 시 <직분사기소견>과 <제분사승지청벽>을 지었는데 이 시가 이이첨 일당에 의해 대역의 뜻이 있다는 무고를 받아 투옥되어 옥고를 치르게 되었을 당시 지어진 가사다. 총 91행 182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송강의 전후미인곡과 비슷한 것으로 송강 작품의 영향을 받아 지은 것이다. 내용은 여인의 정서를 빌려와서 헤어진 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여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일편단심,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과 한탄을 그려내었다.

송강가사의 영향을 받은 작품인 만큼 작품 안에서 천상계와 지상계의 설정, 매화를 통한 화자의 지조, 임금께 정성을 나타내는 옷, 님과 화자의 사이를 방해하는 방해물들, 환생을 통한 님에 대한 사랑 등이 나타나 있다.

또한 이 작품은 작가의 관직생활의 순서에 따라 기술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작품 안에 작가의 삶의 여정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조우인은 늦은 나이인 28세(선조 21, 1588) 때 진사에 합격하고, 45세 때 문과에 급제했다. 하지만 그의 관직생활은 당쟁으로 인하여 변방에서 외로운 관직생활을 하기도 하고 시화를 겪어 문초를 당하기도 한다. 이처럼 관직생활이 순탄치만은 않았던 외로운 충신의 슬픔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자도사>라 할 수 있다. 내용의 구성 순서에 따른 작가의 삶을 정리하면 '님과의 인연 - 관직에 나아갈 때를 기다림 - 관직에 나아감과 물러남 - 다시 관직에 나아감 - 시화로 인해 고초를 치름 - 누명에 대한 억울함과 연군의 정 - 관직의 복귀와 님의 총애에 대한 염원'의 순서로 정리할 수 있다.

芳年 十五의	빈흔 일 전혀 업셔
…(중략)…	
님은 모ᄅᆞ셔도	나는 님을 미더 이셔
早晩 佳期ᄅᆞᆯ	손고펴 기드리니
香閨 歲月은	물 흐르듯 디나간다

위 부분은 화자가 님을 모실 수 있는 아름다운 때를 기다리는 부분으로 작가 조우인이 늦은 나이에 관직으로 나아갔던 역사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관직에 나아가기 전, 관직에 나아가 임금을 모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나 세월만 보내고 있었던 작가의 심경을 담은 것이다.

듯고 못 뵈던 님　　쳔 ᄂᆞᆺ치 즘간 뵈니
ᄂᆡ 님이 잇ᄲᅮᆫ이라　　반갑기를 가을홀가
…(중략)…
공규 십년에　　쳑영을 버들 삼고
아ᄋᆡ온 뜯에　　혼잔 말ᄉᆞᆷ ᄒᆡ온 마리
님은 ᄂᆡ 님이라　　날을 어이 ᄇᆞ리신고
ᄉᆡᆼ각 ᄒᆞ시면　　긔 아니 버엿분가

그러나 화자는 그렇게 그리던 님을 만나게 되었으나 다시 이별하게 되어 십년동안 님을 그리며 외로운 날을 보내게 된다. 위는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다. 이는 작가가 바라던 관직에 진출했으나 다시 관직에서 물러나서 십년 동안 임금을 그리워했던 것으로 평탄치만은 않은 관직생활을 보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화자는 다시 님과 재회를 하게 되는데 이 생활도 오래가지 못하고 청승의 온갖 허물로 화자는 님을 그리워하는 가련한 처지가 되어, 죄가 없지만 모함으로 인해 님과 이별하게 된 자신의 억울함과 신세를 한탄하게 된다.

玉上 靑蠅이　　온갖 허믈 지어 내니
ᄂᆡ 몸애 싸힌 죄는　　그지 ᄀᆞ이 업거니와

청승은 간신들로 자신은 죄가 없지만 이 간신들의 온갖 모함으로 누명을 쓰게 된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한 부분이다. 다음은 이별한 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부분이다.

薄行 劉郞은　　ᄭᅮᆷ의도 아니 뵈며
…(중략)…
銀鍼을 ᄡᅡ야 내야　　五色실 ᄭᅱ여 노코

님의 싸딘 오술　　깁고져 ᄒᆞ건마ᄂᆞᆫ
天門 九重에　　갈길히 ᄒᆞ건마ᄂᆞᆫ
兒女 深情을　　님이 언제 술피실고
…(중략)…
ᄲᆞᆯ ᄀᆞ의 梅花ᄂᆞᆫ　　몃 봉이 퓌연ᄂᆞᆫ고
肝腸이 다 써거　　넉시조차 그쳐시니

류랑(劉郞)은 임금을 뜻하는 것으로, 꿈에서조차 볼 수 없는 님에 대한 그리움과 님을 위하여 정성스럽게 옷을 준비하여도 님의 곁에 갈 수 없는 고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간신들의 모함으로 님과 이별하게 되었으나 화자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신의 지조를 매화로 나타내 자신의 충성심을 나타내고, 임금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은 "간장이 다 써거 넉시조차 그쳐시니"로 표현하여 애절함을 잘 나타내었다.

출하로 ᄉᆡ여뎌　　子規의 넉시 되어
夜夜 梨花의　　피눈물 우러내야
五更에 殘月을 섯거　　님의 ᄌᆞᆷ을 ᄭᆡ오리라

위 부분은 마지막 단락 부분으로 화자는 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과 그리움을 죽음을 통하여 이루려 한다. 자규가 되어 피눈물을 우러내여 님의 잠을 깨우겠다는 화자의 표현에서 화자의 마음속에 맺힌 한과 님에 대한 강한 일편단심을 짐작할 수 있다. 자규는 통한의 울음을 우는 새로 한과 비애를 환기하는 문학적 상징으로 쓰여 왔으며[63], 피눈물과 잔월 역시 애절한 화자의 심정을 뒷받침하는 부분이다. 또한 님의 잠을 깨움은 간신들에 의해 자신의 진정한 충심을 보지 못하고 있는 님께 호소하여 자신의 충심을 알리고 총애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자도사>는 여인의 정서를 빌려와 모함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님을 떠나서 지내야 하는 고신의 슬픔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비록 자신을 버린 님이지만 변함없는 님에 대한 사랑으로 다시 님의 총애를 바라는 충신연주지사의 성격을 지닌

63) 김봉선, 「이재 조우인 시가 연구」, 석사논문(고려대학교 대학원), 2003.

작품이다.

7) 송주석의 <북관곡>

<북관곡>은 봉곡(鳳谷) 송주석(1650-1692)의 작품으로, 조부인 우암 송시열이 예송 논쟁에서 패하여 숙종 1년(1675)에 덕원으로 귀양을 가게 되는데 이때 송주석이 함께 동행을 하여 조부의 입장에서 당시의 억울함과 임금에 대한 연군지정에 대하여 노래한 가사다. 총 116행 232구로 구성되어 있다.

<북관곡>은 조부인 송시열의 억울한 유배에 대한 심정을 표현하려는 만큼 유배에 대한 심정이 잘 드러나 있고, 다른 유배가사에는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는 유배의 원인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어와 셜운지고	이 힝ᄎᆞ 므스 일고
長沙 天一涯예	賈太傅 行色인가
潮州 八千里예	韓吏部 길히런가
北關 千里 밧긔	어ᄃᆡ라고 가시ᄂᆞᆫ고
平生을 도라보니	지은 죄 업건마ᄂᆞᆫ
늣게야 엇찐 일노	이런 禍 만나신고

위는 작품의 처음 부분으로 유배에 대한 억울한 심경이 묻어 있다. “어ᄃᆡ라고 가시ᄂᆞᆫ고”, “이런 화 만나신고” 등의 표현으로 봐서도 이는 유배 가는 당사자가 지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화자는 평생을 돌아보아 지은 죄가 없다고 하여 결백과 유배의 부당함에 대해 말하고 있다.

姦臣이 틈을 보아	內外로 향응ᄒᆞ니
凶人의 한 샹소로	嚆矢를 삼아 두고
晝夜의 마련ᄒᆞ야	一時예 니러나니
한 사ᄅᆞᆷ 잡는 말이	罪目도 하도 할샤

…(중략)…

前後의 求ᄒᆞᆫ 사ᄅᆞᆷ	아오로 罪 입으니

朝廷의 현ᄉᆞ대부　　며치나 ᄂᆞ마시며

간신들의 상소로 인해 아무런 죄도 없이 많은 죄를 뒤집어쓰게 된 억울함을 토로하고, 정적들에 대한 분개의 마음을 담아냈다. 송시열이 억울하게 죄목을 쓰고 유배를 가게 된 것은 예송논쟁의 패배로 인한 것인데 작품 안에서도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나타나 있다.

朞年服 衆子設이　　禮ᄃᆡ로 ᄒᆞ려더니
海尹의 凶疏 後예　　샤셜이 橫流ᄒᆞ야
卑主 二宗設과　　國本이 未定上疏
…(중략)…
仁宣后 服制일이　　마초와 날셰이고
僭言이 罔極ᄒᆞ야　　온갖 길노 나아가니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효종이 죽자(1659) 자의대비의 복상 기간을 3년으로 할 것인가 기년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는데, 송시열은 서인으로 효종을 차자로 보아 기년설을 주장하고 윤선도등 남인은 장자로 보아 3년설을 주장하였다. 이에 기년설 채택으로 서인의 승리로 끝이 났으나 현종이 즉위하고 효종비인 인선왕후가 죽자(1674) 다시 자의대비의 복상 기간이 문제가 되었다. 서인은 1차 예송논쟁에서와 같이 대공설(9개월)을 주장하고 남인은 기년설을 주장하였다. 2차 예송논쟁은 기년설의 채택으로 서인이 패하자 복상 문제로 인하여 송시열은 유배를 가게 되었다.

유배령을 받고 떠나기 전 가족, 친척과 이별하는 화자의 모습은 안타까움과 애틋함으로 그려져 있다.

長楊驛 빗긴 날에　　骨肉을 離別ᄒᆞ고
여윈 말 치쳐 모라　　어드러 간단 말고
가ᄂᆞᆫ이 ᄆᆞ음은　　어히나 업거니와
보내ᄂᆞᆫ 心事ᄅᆞᆯ　　ᄉᆡᆼ각거든 ᄀᆞ이업다
하말며 家鄕親屬이야　　離別인들 미쳐 홀가
感愴한 情懷ᄅᆞᆯ　　어이구려 견대ᄂᆞᆫ고

유배지에 가는 여정 동안 화자의 행색은 초라하며 외롭고 쓸쓸한 모습이다. 자신은 결백하나 모함으로 온갖 많은 죄를 쓰고 임금과 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유배 가는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잃고 떠나는 화자의 슬픈 마음은 마치 송시열이 직접 쓴 듯 직접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浮雲이 擁鬱하야　　天日을 ᄀᆞ려시니
凄凉ᄒᆞᆫ 이 行色이　　어이구려 비최실고
身邊네 貂裘로　　눈물을 가리오고

ᄀᆞᆺ득이 冷落ᄒᆞᆫᄃᆡ　　雨雪은 무슴 일고

雲山이 疊疊ᄒᆞ니　　고향이 어ᄃᆡ메오
도로혀 ᄇᆞ라보니　　눈물이 졀로 난다

내 집의 친히 볼 줄　　내 엇지 알아실고
아마도 셜운 ᄯᆞ디　　가지록 ᄀᆞ이 업다

‘浮雲, 擁鬱, 눈물, 冷落, 雨雪, 雲山, 疊疊’ 등의 단어들로 화자의 답답함과 슬픔을 나타내어 읽는 이로 하여금 애상적이 느낌이 들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화자는 모함으로 인해 유배를 가게 된 원통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일편단심과 국가를 걱정하는 충신의 모습도 잃지 않고 있다.

窓지게 주어 닷고　　寂寞히 안자시니
집 念慮 나라 근심　　헹가림도 하고 만타

마지막에는 임금이 언젠가는 자신을 다시 불러 주실 것을 믿어 해배가 되면 가족들과 함께 자신이 억울하게 겪었던 이 일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기를 꿈꾸는 화자의 소망이 담겨 있다.

어나 졔 됴흔 ᄇᆞᆯ　　이운 플 어내내여

楚澤을 이별ᄒᆞ고　　故國의 도라가셔
겨레것 모다 안자　　이 辭說 이ᄅᆞ려니

<북관곡>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작가 자신의 일은 아니지만 마치 자신의 일처럼 주관적으로 감정의 묘사를 소소하게 늘어놓고 있다. 그래서 조부의 억울함과 원통함이 읽는 이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게 하였다. 사건의 내막과 정적들에 대한 비판을 거론하면서 조부 송시열의 결백과 일편단심을 작가는 전하고 있다.

8) 김춘택의 <별사미인곡>

<별사미인곡>은 김춘택(1670~1717)이 제주로 유배 갔을 당시에 지은 것이다[64]. 임금을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순한글로 표현되어 있으며 율조의 흐름과 언어구사가 평이하여 친근감을 갖게 한다.[65] 이 가사는 유배지에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작자의 충정 어린 마음을 두 여인이 화답하는 형식으로 담고 있는데 이는 송강 정철의 <속미인곡>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독특한 점은 작품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화자를 등장시키고 있는 점이다. 작품 서두에 등장하는 '저 각시'는 송강의 두 작품에 나오는 작중화자[66]로 작품외적 틀을 만들어 송강 작품의 작중화자와 대화를 시도하는 특이한 대화체 어법을 지닌다.[67] 내용의 구성은 4단락으로 이루어지는데 1단락(1행~11행)에서 '저 각시'와 비교한 자신의 처지를 간략하게 서술한 뒤 2단락(12행~50행)에서 님과 이별한 자신의 처지에 대해 한탄을 한다. 현생에서 이루지 못한 님에 대한 사랑을 환생을 통하여 이루고자 함을 3단락(51행 ~ 73행)에서 말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4단락(74행~78행)에는 이 모든 내용을 듣고 있던 또 다른 여인의 발화가 이루어진다.

---

64) 북헌 김춘택은 노론의 중심 가문으로 숙종 때에 영향력을 행사했으나 기사환국으로 여러 번 유배된다. 그 후 1701년 소론의 무고로 부안에 유배되고, 희빈 장씨의 소생인 세자를 모해한다는 무고로 1706년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65) 임기중, 「한국가사주해연구」(아세아문화사, 2005), p.167.
66) 고순희, 「18세기 정치현실과 가사문학」, 『어문학』 78집(한국어문학회, 2002), p.194.
67) 최규수, 「김춘택의 <별사미인곡>에 수용된 <미인곡>의 어법적 특질과 효과」, 『온지논총』 4집(온지학회, 1998).

이보소 져 각시님　　설운 말삼 그만 하오
말삼을 드러하니　　설운 줄 다 모를쇠
인년인들 한 가지며　　니별인들 갓탈손가
광한젼 백옥경의　　님을 뫼셔 즐기더니
…(중략)…
광한전 어대머오　　백옥경 내 아던가
원앙침 비취금의　　뫼셔본 적 바히 업내
내 얼골 이 거동이　　무엇로 님길고
질삼을 모라거니　　가무야 더니랄가

위는 작품의 처음 부분으로 '저 각시'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이별의 슬픔이 더 크다는 이야기를 한다. 자신은 '광한전', '백옥경'도 모르며 님을 뫼셔 본 적도 없으며 님을 위해 길쌈과 가무는 해 보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본 작품에는 직접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저 각시'지만 화자의 내용을 통해 '저 각시' 또한 사랑하는 님과 이별한 여인이며 더불어 '광한전', '백옥경'에 지냈던 여인으로 이는 송강 정철의 <속미인곡>에 등장하는 여인을 말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화자는 '저 각시'의 슬픔이 크다 할지라도 님의 사랑을 한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 없는 자신의 슬픔에는 비할 바가 아니라고 '저 각시'에게 말하고 있다. 이것은 자신의 상황보다 나은 인물을 제시하여 비교함으로써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의 비극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낸다.

화자가 말하는 비극에 대한 내용은 2단락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화자는 뼈가 가루가 된 후에도 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님을 사랑하고, 님을 섬기는 것이 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가혹하게도 화자는 님과 인연조차 없었음을 슬퍼한다.

나도 일을 가저　　남의 업산 것만 어더
부용화 오살 짓고　　목난으로 나맛사마
한랄긔 맹셰하여　　님 섬기랴 원이려니
조물 싀긔한가　　귀신이 희즈온가
…(중략)…
인연이 그러커든　　니별이나 업거나

니별이 이러커든　　인연이나 잇돈던가

<별사미인곡>의 화자가 님을 뫼셔본 적도 없고, 인연이 없었음을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작가인 김춘택이 관료생활을 하지 못했던 자신의 슬픔을 표현한 것이다.[68] 님을 뫼셔본 적이 없는 화자이기 때문에 정철의 작품 속 여인은 옷을 지어 님에게 보낼 수 있는 처지지만 <별사미인곡>의 화자는 보내지도 못하는 처지이다.

산호지게 백옥함의　　님 옷도 잇내 마난
뉘려셔 가저가며　　가저간들 보실손가
내 하인 뉘라하고　　무산 말노 보내올고

꽃이 피면 더욱 간절히 그리워지는 님이지만 님 주위에 있는 고운 여인들에 비하면 화자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다. 님을 뵙지도, 님을 사랑할 처지도 못되는 것 같지만 님에 대한 그리움을 지울 수 없는 화자는 이러한 이유를 어려서 그런지, 미쳐서 그러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 님은 화자의 의식뿐만이 아닌 무의식까지 지배한 분으로 님에 대한 강한 그리움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이유는 님을 뫼셔본 적이 없어서임을 화자는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어려서 이래한가　　미처서 이러한가
마암이 절노 나니　　뉘라서 금할손고
뫼서서 이래하기　　각시님 갓도던들

인연도 없었으며, 님을 뫼셔본 적이 없는 화자는 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수도, 전할 수도 없자 결국 현생이 아닌 죽음을 통하여 환생하여 현생에서 이룰 수 없는 자신의 사랑을 이루고자 한다. 그리하여 무려 11가지를 제시하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사랑하는 님의 옆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것 역시 정철의 작품 속 화자들보다 더 많은 환생의 종류를 나열하면서 자신은 더한 노력을 통해서라도 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이루겠다는 의지와 그만큼 누구보다 더 자신의 사랑이 더 애절함을 강조하고 있다.

68) 고순희, 앞의 논문, p.198.

차생의 이러커든　　후생을 어이 알고
차라리 싀어져　　구름이나 되어이셔
…(후략)…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또 다른 여성이 앞의 화자에게 말을 건넨다.

어와 이 각시님　　그려도 그러한다
팔자를 어이하며　　천뉸인들 도망할가
더하거니 덜하거니　　분별하여 무엇하며
구람이나 바람이나　　되어난들 무엇할고
각시님 잔가득 부으시고　　한시람 이자소셔

이 발화의 여인은 작품 앞에 나왔던 '저 각시'도 아니고, 이야기를 계속해 오던 화자도 아닌 제 3의 인물로 작가의 내면의식을 표출시키는 또 다른 작중화자의 분신이다.[69] 이 여인은 진술을 전환시키며 결론을 이끌어 낸다. 팔자는 어찌할 수 없고, 천륜은 도망가지 않는다는 주장은 곧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려 하는 작가의 의식을 보여주고, 언젠가는 님을 만날 수 있다는 낙관적인 미래의 자세를 보여준다.[70] 마지막에 술 한 잔을 기울이자는 것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근심과 슬픔을 털어버리려는 방법이다. 님에 대한 사랑은 가득하나 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괴로운 화자의 마음속에 계속 되어온 갈등을 종식시키고 비관적인 탄식을 평온하게 가라앉히며 작품은 끝을 맺는다.[71]

유배를 가게 된 김춘택은 자신의 충정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당시 널리 알려진 송강 정철의 작품의 구조를 취하여 글을 지었을 것이다. 또한 정철의 작품 속 화자와 비교하여 자신의 신세가 더 가련함을 강조하며, 이는 곧 정철보다 님에 대한 자신의 그리움이 더 짙고 곡진함을 말하고 싶음이다. 더불어 임금께 다하고 싶은 정성만큼 이룰 수 없는 현실에 대해 마음속 깊이 쌓인 마음의 한과 자신의 신세 한탄을 <별사미인곡>을 통해 표출하였다.

69) 최규수, 앞의 논문.
70) 고순희, 앞의 논문.
71) 최규수, 앞의 논문.

9) 이진유의 <속사미인곡>

북곡 이진유(1669~1730)는 영조대 중국사신으로 갔다 돌아오다 사화를 만나 나주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추자도로 이배되었는데 <속사미인곡>은 추자도에서 지은 작품으로 총 187행 374구로 되어 있다. 작품의 내용은 추자도에 유배되는 경로와 3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면서 느낀 회포를 담고 있다.

삼년을 님을 떠나	해도의 뉴락하니
내 언제 무심하여	님의게 득죄한가
내 얼골 곱돗던지	질투할산 중녀로다
유한한 이내 몸을	션음한다 니라노쇠

1단락(1행~5행) 부분으로 작가가 유배지인 추자도에 오게 된 배경을 먼저 밝히고 있다. 자신이 유배지에 오게 된 것은 임금의 잘못이 아닌 자신을 질투하는 중녀 때문이라 한다. 여기서 중녀는 역사적인 상황으로 보았을 때 노론[72]을 말한다. 자신을 유배지로 보낸 사람은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원망하지 않는 것은 충신의 기본자세로 작가 역시 이러한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잘못도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

2단락(6행~22행)에서는 화자가 압송되어 오는 여정이 나타나 있다. 작가는 '셔하-봉황셩-구연셩-압녹강-쳥쳔강-패슈-근긔' 차례대로 자신이 지나온 행적을 고스란히 순서대로 기록해 기행적인 특성을 옮겨놓고 있다.[73] 또한 이 부분에서도 1단락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유배되는 상황에서도 님에 대한 원망이 아닌 자신이 유배보다 중한 벌에 처해지지 않고 유배에 그친 것은 님의 은혜로 피눈물이 난다고 하고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힘든 상황을 님에게 원망이 아닌 은혜로 돌리면서 자신의 일편단심과 충정을 보여주고 있다.

근긔 압송은	고금의 초견이오
자딜 졔직은	이은도 됴쳡하다

72) 노론과 계속 갈등을 일으켜온 소론은 영조가 즉위하면서 영수 김일경과 목호룡 등 신임사화를 일으켰던 대신들이 숙청되고 다음 1725년에 여기에 동조했던 6인이 귀양을 갔다. 이진유도 6인에 포함되어 유배를 가게 되었다. 조성향, 「유배가사 고찰」, 석사논문(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73) 류연석, 「속사미인곡의 기행문학성 고찰」, 『고시가연구』 16집(한국고시가문학회, 2005).

박명한 이내 몸의　　님의 은혜 이러하니
녀관 잔등의　　피눈물이 절노 난다

2단락과 마찬가지로 3단락(23행~44행)에서도 화자가 중국에서 고국으로 돌아와 유배지인 나주로 압송되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다. 화자는 유배지로 떠나기 전 선산에 들르고 성서 구택의 가묘에 하직하며 친척들과 손잡고 이별의 슬픔을 나눈다. 하지만 자신이 떠날 때 옛 친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은 점을 말하면서 유배자로서 겪는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고통 또한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임금을 향한 충정의 마음도 잊지 않는다.

의릉을 쳡망하니　　숑백이 창창하다
고신원누랄　　한수의 가득 뿌려
님 향한 일편졍을　　참고참아 떠나가니
내마암 이러할 제　　님이신들 니즐손가
호남길 더위잡아　　노령의 을나쉬여
북으로 도라보고　　두셰번 탄식하니
부운이 페일하야　　경국을 못볼노라

여기서 화자가 의릉을 바라봄으로써 임금에 대한 충성의 마음은 옛과 변함이 없으나 충신으로 활약하던 화자의 과거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대비되어 충신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바뀐 화자의 처지에 대한 슬픔이 느껴진다. 님을 두고 떠나는 신하의 슬픈 마음을 한강에 가득 뿌리는 눈물로 대신하고, 벌써부터 그리워지는 마음은 님이 계시는 쪽을 돌아보면서 탄식을 짓는 모습으로 그려 작품을 읽는 이로 하여금 화자의 애절함이 더욱 간절하게 전해지도록 하고 있다.

유배지에 도착한 화자는 정사군이 마중을 나오고 거처와 의식이 염려할 것이 없으니 이 모두가 님의 망극한 은혜라고 말한다. 님의 곁을 떠나온 것은 슬픔이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또한 임금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 지극한 충성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진유는 나주에서 추자도로 다시 유배를 가는데 4단락(45행~70행)은 이진유가 추자도로 유배를 가는 명을 받고 추자도로 떠날 준비를 하기 전 심경을 표현한 부분이다. 화자는 임금이 자신을 멀리 유배 보낸 것은 당시 재상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자 이러한 위험에서 자신을 구해주기 위한 것으로 자신을 걱정해 주는 님의 은혜가 망극하다고 한다.

졀도쳔극으로	즁노랄 막으시니
종시예 곡젼하심	오늘이야 더욱 알다
션녁사방은	신자의 직분이라
봉사미로랄	일카랄것 젼혀 업다
젼후 은포난	화곤도곤 빗나시니
이 죄 위영은	이 더욱 밍외로다

한편, 님의 은혜로 이렇게 목숨을 건지고 멀리 오게 되었다고 했지만 이러한 은혜를 입을수록 님께 서운한 감정 또한 깊어지고 있음을 화자는 토로한다. 백년형극을 추자도에서 처음 열게 되었고, 자신을 원수같이 보고 있다고 하였다. 더불어 떠날 준비를 차리고 금오랑을 기다리면서 유배된 동생[74]을 만나게 되고 집안의 재앙이 거듭되고 있음을 탄식한다.

님의 은혜 이럭사록	긔질함은 더 심하외
해도도 하고한대	원악디랄 골나내여
백년형극을	츄자도의 처음 여니
골육도 구시거든	남이야 니랄손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임금의 은혜라 여기며 원망보다 찬양하는 태도를 보이던 화자도 점차 자신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더 나아지기보다는 더 힘들어지자 신하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서운한 감정을 못내 숨기지 못하고 이를 잠시 드러내었다. 하지만 곧 화자는 위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시 이 모든 것을 '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정리하고 연군지정을 담는다.

다음으로 5단락(71행~91행)에서는 화자가 배를 타고 추자도로 가는 길에 겪은 어려움을 담고 있다. 추자도까지 가는 항로는 쉬운 길이 아니었다.

74) 동생 진검은 영조 원년 2월 이진유가 유배되고 같은 해 6월 형의 죄에 연루되어 강진현에 유배되었다. 윤재철, 「이진유의 속사미인곡 연구」, 석사논문(한국교원대학교, 1995), p.36.

시야 쟝반하매	광풍이 접텬하니
중뉴실타하야	호흡이 위태할새
장년이 속수하고	주듕이 실색하니
묘연한 이내 몸이	사생이야 관계하랴

당시의 험난한 여정을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화자는 이처럼 목숨이 위태위태하는 상황에서 경사를 외우고 성현들을 생각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사대부로서의 권위 있는 모습을 잃지 않는다.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여 옛 충신들을 열거하며 그들의 시를 읊고 있는 자신을 설정하면서 작가는 유가적 태도와 충성이 변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한 것인데, 이는 사대부나 님으로부터 설득력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다.[75]

험난한 뱃길 속에서 살아남은 화자는 자신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온전히 살아있음에 대하여 님이 자신을 도와줘서 그런가라는 말을 남긴다. 종결형이 아닌 의문형으로 해 놓은 것은 비록 자신은 충직한 신하로서의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지만 앞서 추자도 유배 명령을 받고 님이 자신을 생각해 주지 않음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드러낸 것처럼 님이 자신을 돌봐주실 거라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신이 살아남은 것에 대한 연장선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6단락(92행~119행)은 추자도에 도착하여 그 곳의 정경과 화자가 머무르게 될 거취와 압송관과 이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촌낙이 쇼조하야	수십호 어가로다
풍우랄 무릅쓰고	와실을 차자드니
모자난 다 날리고	듁창의 무지한대
샹샹옥누난	마른대 전혀 업다
말만한 좁은 방의	조슬도 만흘시고

…(중략)…

험난한 뱃길에서 살아남아 도착한 추자도의 정경은 말 그대로 쓸쓸함이 묻어난다. 자신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집은 지붕의 띠도 날리고, 있어야 할 창지는 없이 대만 남아있으며, 지붕은 물이 새어 마른 곳이 없을 정도다. 방에는 벼룩과 이가

75) 류연석, 앞의 논문, p.91.

많아 누울 곳이 마땅치 않고, 젖은 옷을 말릴 불도 없고 쌀도 넉넉지 않아 흰죽으로 요기를 하였다고 한다. 암담한 상황은 집안 내부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집 주위는 가시 울타리로 모두 둘러있고, 밤낮으로 들리는 건 파도소리와 바람소리였고, 아침저녁으로 안개와 비가 바뀌어 일어났다. 유배지의 악조건은 곧 화자의 위기로 화자에게 주어진 암담한 상황이 더욱 비극적으로 그려져 화자의 고달픔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압송관 배별하야　　님 계신대 도라가니
경경한 일단심이　　다시곰 새로워라

이제 화자는 추자도까지 함께 왔던 압송관과 헤어지게 되는데, 님이 계시는 곳으로 다시 가게 되는 압송관을 보면서 다시금 일편단심을 표한다. 화자는 추자도에 도착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간고한 생활을 통하여 님에 대한 충성보다는 현실적인 절망을 더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압송관과 이별하면서 일편단심을 다시 거론하며 신하로서의 명분을 지키려는 사대부적인 태도를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7단락(120행~131행)에서 화자는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통하여 유배자의 쓸쓸함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누추했던 자신이 거처할 곳을 백성들과 합심하여 새롭게 지어 이제 마음에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음을 얘기하고 있다.

도듕의 모든 백셩　　딘심하여 완역하니
번토운와하던　　챵화현 풍속일다
졔도난 추익하나　　거처난 쇼쇄하다
언앙굴신하미　　이제야 죠안하다

마음의 불안함을 없애고 안정을 찾은 화자가 주자서를 읽으며 성현의 도를 익히고 자신의 과거에 대한 성찰을 표현하는 모습에서는 님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화자의 심경을 살필 수 있다.[76]

감군은 삼자를　　벽상의 대셔하고
망미헌 편액은　　도듕의 뒤 모로리

76) 위의 논문, p.94.

죵일 폐호하고　　쥬셔랄 피열하니
의리 무궁함을　　늙게야 깨다랄다

8단락(132행~153행)에서는 유배지에 사는 주민들의 모습과 생활의 궁핍, 환경적 어려움이 나타나 있다. 유배지를 새, 까치는 없고 까마귀와 솔개만 있는 곳이며, 주민들의 모습은 고기머리와 거북 얼굴, 들 사슴, 오랑캐 목소리로 표현되어 있다. 길조는 없고 흉조만 가득한 곳으로, 그곳의 사람들은 좋지 않은 인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화자의 어두운 심경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자신의 생활상을 그리는데 양식도 부족하고 소금, 장도 부족한 상황에서 고기를 바라겠느냐는 신세 한탄을 늘어놓는다. 명절에는 고기가 없는 떡국을 쑤어먹고, 배추가 좋은 반찬인 그러한 상황을 화자는 생전 처음 본다는 말을 한다. 사대부로서 부족한 삶을 살아보지 않은 그로서 유배지에서 겪고 있는 상황은 믿기 어려운 현실이고 비극적인 삶 자체였을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자신의 주위환경 모두가 악조건으로 보이고 그 가운데서 화자는 깊은 절망과 서글픔을 느끼고 있다. 여름에도 화자의 고생은 계속되었는데 심한 더위와 습기의 자연적인 조건과 파리, 모기, 뱀, 전갈, 지네 등 갖가지 많은 벌레, 동물로 힘든 날을 보냈음을 말한다. 유배를 갔던 사대부들은 어려움보다는 자연과 더불어 유유자적한 모습과 학문을 익히는 모습을 작품에 담기도 했지만 이진유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난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이는 작가가 당시 유학자의 면모를 지니기 힘들 정도의 극한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었음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9단락(154행~178행)은 화자가 자신의 외로움과 임금에 대한 연군지정을 표하고 다시 자신을 총애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부분이다. 화자는 후손도 없고 병이 들면 구호할 사람도 없으며, 집을 지킬 이가 없고, 임금께 하사받은 책을 벌레가 먹어도 말릴 이가 없고, 정원의 꽃을 꺾어도 금할 사람이 없다는 등의 홀홀단신의 외로움을 토로하였다. 유교사회에서 사대부들에게는 가문과 학문은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화자는 이 두 가지 모두 지킬 수 없는 상황이기에 자탄을 하고 있으며 자신이 이렇게 외로운 처지로서 세상천지 의지할 곳은 오직 님 밖에 없다고 한다.

천디간 독닙하야　　사방을 둘너보니
우리 님 아니시면　　눌을 다시 의지할고
시운이 불행하야　　쳔니의 떠나시니

내 신셰 고혈한 줄	님이 모르실가
긴 사매 들고 안쟈	넷건앙을 녁슈하니
우직하기 본셩이오	광망함도 내 죄오나
근본을 생각하니	님 위한 정셩일새

더불어 화자는 자신의 행동 모든 것은 임금을 위한 정성이었음을 밝힌다. 그러하기에 비록 지금은 임금께 버림받은 몸이지만 '백두음(白頭吟)[77]'과 '장문부(長門賦)[78]' 같은 중국의 시부(詩賦)를 인용하여 임금의 총애를 다시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소망을 표현했다.

지하로 오살 짓고	부용으로 치마 지어
협듕의 두어신들	눌 위하야 단장할고

위는 마름과 연꽃으로 옷을 지어 광주리 속에 넣어놨지만 "누구를 위해 단장할까?"라 하여 권력핵심에서 밀려 소외된 유배자의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79]

마지막 10단락(179행~187행)에서 화자는 꿈을 통하여 님을 모시지 못하는 자신의 한을 풀고 꿈을 깨어서는 여전히 귓가에 님의 말소리가 완연하고, 님의 향기가 자신의 옷에 품어있다 하며 언제 이러한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까라는 답답한 마음을 내비추었다. 그리고 끝에서 지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꿈이 임금께서 마음을 고치어 자신에게 해배의 은총을 내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담았다.

어나 날 이내 꿈을	진즌것 삼을손가
두어라 와셔긔개지랄	여일망지 하노라

<속사미인곡>은 미인으로 지칭하는 미인곡계 가사 중의 마지막 작품으로[80] 이처럼 시간적 순서를 밟아가며 자신의 경험을 사실에 기초하여 읊는 가운데 님에 대

77) 前漢時代 司馬相如가 첩을 얻으려고 하자 부인인 卓文君이 이 시를 지어 결별의 뜻을 전하였으며, 이에 司馬相如가 첩을 얻는 것을 단념하였다고 한다.
78) 陳皇后가 武帝의 총애를 잃은 것을 슬퍼하여 長門宮에 별거하면서 黃金 百斤을 司馬相如에게 주어 이 賦를 지었는데, 이것으로 武帝의 총애를 회복하였다고 한다.
79) 류연석, 앞의 논문.
80) 윤재철, 앞의 논문, p.13.

한 서정을 토로하였다.[81] 또한 다른 유배가사와 마찬가지로 작품의 화자를 여성화자로 설정하여 연군지정과 유배자로서 느끼는 외로움과 회한을 담고 있다. 하지만 <속사미인곡>은 처음 부분에서는 여성화자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작품 내용의 대부분에서 보여지는 화자는 여성보다는 사대부 남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님' 역시 다른 유배가사에서 사랑하는 연인 사이의 '님'으로도 볼 수 있는 모습과는 달리 '임금'임을 확연히 알 수 있다. 화자가 여성이 아닌 남성으로 바뀌면서 작품의 내용은 님에 대하여 애절함과 애틋함보다는 충신의 일편단심과 정권에서 밀려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험난한 유배생활을 하는 사대부의 고독과 서글픔이 강하게 느껴진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님에게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면서도 일편단심 또한 반복하여 해배의 군은이 내려지길 간절히 바라며 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고 있다.

3. 보효형 시가

1)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맹사성(1360~1438)은 전통적인 관료이자 학자로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한 문학 활동을 많이 하였고, 그의 시조 <강호사시가>는 이러한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작품이다.[82] 총 4수로 된 연시조로 작가는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계절적 특징과 변화하는 계절에 따라 강호한정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더불어 자신이 이러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임금의 은혜라 여기며 군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江湖에 봄이 드니 밋친 흥이 졀로 난다
濁醪溪邊에 錦鱗魚ㅣ안주로다
이 몸이 閒暇히옴도 亦君恩이샷다.

81) 고순희, 앞의 논문, p.202.
82) 정원표,「군은의 표현과 서정성의 문제-맹사성의 <강호사시가>를 중심으로」,『한국고전시가작품론 2』(집문당, 1992).

江湖에 녀름이 드니 草堂에 일이 업다
有信ᄒᆞᆫ 江波는 보내느니 ᄇᆞ람이로다
이 몸이 서늘ᄒᆡ옴도 亦君恩이샷다.

江湖에 ᄀᆞ을이 드니 고기마다 솔져잇다
小艇에 그물 시러 흘리띄여 더뎌 두고,
이 몸이 消日ᄒᆡ옴도 亦君恩이샷다.

江湖에 겨월이 드니 눈깁픠 자히 남다
삿갓 빗기 쓰고 뉴역으로 오슬 삼고
이 몸이 칩지 아니ᄒᆡ옴도 亦君恩이샷다.

<강호사시가>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풍요로움과 한가로움이다. 봄에는 흥이 절로 나고 냇가에서 금린어를 안주 삼아 술을 마시고, 여름에는 일이 없어 강바람을 쐬며 시원하게 보내고, 가을에는 살찐 고기를 잡기 위해 배를 타고 그물을 싣고 흘러가면서 던져둔다. 겨울에는 소복이 눈이 쌓이고 화자는 삿갓을 빗겨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으며 한가롭게 지내고 있다.

화자는 모든 계절에 긍정적인 힘을 불어넣는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은 기쁨의 계절로 술과 안주로 더욱 그 흥을 돋우고, 더위로 고생하는 여름은 일도 없고 시원한 바람을 쐬고 있는 모습으로 미화시키고 있다. 또한 가을에는 고기를 열심히 잡는 것이 아닌 그물을 싣고 흘러가면서 던지는 것으로 생계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보다는 풍부한 음식을 바탕으로 유락하는 모습이다. 겨울은 어떤 계절보다 쇠락의 분위기를 지니고 있지만 작가는 차가운 눈마저 쌓인 눈의 양으로서 풍요로운 분위기를 만들고 삿갓을 빗겨 쓴 화자의 모습에서는 추운 계절이 무색할 정도의 여유로움을 보여준다. 이처럼 모든 자연에서의 삶을 풍요롭고 평화롭게 그리고 나서 마지막 종장에서는 이 모두가 임금의 은혜임을 반복하여 말하고 있다.

하지만 화자가 말한 것처럼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계절에 따라 해야 될 일거리가 있으나 작품 속 화자는 늘 한가로운 모습을 취하고 있으며, 날씨 또한 계절마다 그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작품에는 더워야 될 여름은 시원하게, 추워야 될 겨울은 춥지 않게 그려지고 있다. 이것은 작가가 임금의 은덕을 기리기 위하여 강호를 배

경으로 하여 쓴 정치적인 목적의 문학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강호는 문학을 대표하는 색깔이며, 군은은 정치를 대표하는 것으로 서로 보색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83] 이는 곧 치사한객으로 여유로운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대부의 모습이기도 하다.

2) <감군은>

四海(사히) 바닷 기픠는 닫줄로 자히리 어니와
님의 德澤(덕틱) 기픠는 어닉 줄로 자히리잇고
享福無疆(항복무강)ᄒᆞ샤 萬歲(만셰)를 누리쇼셔
享福無疆(항복무강)ᄒᆞ샤 萬歲(만셰)를 누리쇼셔
一竿明月(일간명월)이 亦君恩(역군은) 이샷다

泰山(태산)이 놉다컨 마ᄅᆞ는 하ᄅᆞ해 몬 밋거니와
님의 놉ᄑᆞ신 恩(은)과 德(덕)과는 하늘 ᄀᆞ티 노ᄑᆞ샷다
享福無疆(항복무강)ᄒᆞ샤 萬歲(만셰)를 누리쇼셔
享福無疆(항복무강)ᄒᆞ샤 萬歲(만셰)를 누리쇼셔
一竿明月(일간명월)이 亦君恩(역군은) 이샷다

四海(사히) 넙다ᄒᆞᆫ 舟楫(쥬즙)이면 건너리어니와
님의 너브샨 恩澤(은틱)을 此生(ᄎᆞ생)애 갑소오릿가
享福無疆(항복무강)ᄒᆞ샤 萬歲(만셰)를 누리쇼셔
享福無疆(항복무강)ᄒᆞ샤 萬歲(만셰)를 누리쇼셔
一竿明月(일간명월)이 亦君恩(역군은) 이샷다

일편단심ᄲᅮᆫ을 하늘하 아ᄅᆞ쇼셔
빅골미분인들 단심이ᄯᅳᆫ 가시리잇가
享福無疆(항복무강)ᄒᆞ샤 萬歲(만셰)를 누리쇼셔
享福無疆(항복무강)ᄒᆞ샤 萬歲(만셰)를 누리쇼셔
一竿明月(일간명월)이 亦君恩(역군은) 이샷다

83) 위의 논문.

<감군은>은 전체 4장의 분절체로 되어 있고 반복되는 후렴구가 나타나고 있어 고려속요의 특징을 지닌 악장이라 할 수 있는데 『악장가사』, 『고금가곡』에 가사가 전하며, 정확한 창작시기와 작가는 알 수 없다.[84] 여타의 악장에 대한 평가가 그러하듯이 <감군은> 역시 문학적 평가에 있어서는 혹평을 받는다.[85] 사실 악장의 문학은 개인의 감정을 노래하고 개인의 어떤 욕구에 의해 창작되는 다른 문학 장르와 달리 개인의 사적인 일이나 사적인 감정을 담기 위한 순수한 감정으로서 창작되기보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국가의 공식적인 행사인 연회와 종묘제례에 사용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인 목적이 강하게 자리한 문학이다. 그 내용 또한 왕조를 건설한 왕업을 찬양하고, 임금의 만수무강, 자손번창을 기리는 송축적인 성격을 지니는 문학으로 한마디로 임금을 찬양하고 충성을 담은 문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인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고도의 수사법이나 새로운 기교를 사용하여 참신하고 세련된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상투적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충신연주지사적인 성격으로 칭송을 받던 작품들의 유명한 구절을 사용하거나, 당시의 유행하던 표현이나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겉으로도 한 눈에 송축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감군은> 역시 정치적인 성격을 지니는 작품으로 문학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비판적인 평가를 피해 갈 수 없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문학적인 면에서의 평가가 아닌 본 연구에서의 목적에 견주어보면 <감군은>은 임금에 대한 연군지정이 충만한 작품이다. 비록 그 표현미에서는 상투적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지만 그 상투적인 표현으로 임금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과 충성의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1장에서부터 3장은 임금의 은덕을 자연에 비교하여 은덕의 높음을 찬양한다. 1장에서는 바다의 깊이는 닻줄로 잴 수 있으나 임금의 은덕은 잴 수 없음을, 2장에서는 높은 태산과 비교하여 태산은 하늘의 해에 미치지 못하지만 임금의 은덕은 하늘처럼 높다고 하였고, 3장에서는 넓은 바다는 배를 타고 건너갈 수 있지만 임금의 은덕은 한평생 갚을 수 없다고 하여 더 넓음을 강조하였다. 4장에서는 백골이

84) <조선왕조실록> 세종 24년 2월 기록에 상진이 임종 때 자제들에게 하는 말 속에 '감군은'이라는 말이 있었기에 작가를 '상진'이라고 하나 상진은 조선 성종에서 명종 때의 문신으로 그 시기가 맞지 않다. 또 학자들에 따라 작가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하므로 본고에서는 미상으로 하고자 함을 밝힌다.

85) 이병기 - "君王의 頌德을 爲主한 만큼 더러 事實이라 할지라도 阿諛的 誇張的인 讚辭에 不過하다." 『國文學全史』(신구문화사, 1957).
정병욱 - "아첨하는 태도가 농후하게 반영되어 있다." 『한국고전시가론』(신구문화사, 1999).

가루가 되어도 변하지 않을 임금을 향한 일편단심을 말하고 있다. 또한 각 장의 후렴구에서는 공통적으로 끝없는 복을 누리며 임금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송축적인 태도와 자신이 달빛 아래서 낚싯대를 드리우며 지낼 수 있는 것이 임금의 은혜라 말하며 자연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보낼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아첨의 태도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나, 우리는 <감군은>에 대한 정확한 창작배경과 작가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작품에 담겨진 화자의 진실성은 접어두고 작품에 드러나는 화자의 태도를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면 작가가 임금에 대한 자신의 강한 충성의 마음을 표현하기에는 이러한 과장된 표현법이 가장 적합한 방식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김구의 <연군시조>

올히 댤은 다리 학긔 다리 되도록애
거믄 가마괴 해오라비 되도록애
享福無彊ᄒᆞ샤 億萬歲ᄅᆞᆯ 누리쇼서.

위 시조는 김구(1488~1534)가 옥당에서 숙직을 할 때 중종의 요구에 의해 지어 부른 것이다.[86] 오리의 짧은 다리가 학의 다리가 되고, 검은 까마귀가 백로가 되도록 임금께서 끝없는 복을 누리며 만수무강하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담긴 시조이다. 현실적으로 오리의 다리가 학의 다리가 되고, 까마귀가 백로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작가는 불가능한 사실을 제시하여 임금의 영원한 축수와 나라의 태평성대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

泰山이 놉다 ᄒᆞ여도 하ᄂᆞᆯ 아래 뫼히로다
河海 깁다 ᄒᆞ여도 싸 우히 므리로다
아마도 높고 깁흘슨 聖恩인가 하노라.[87]

86) 김구는 옥당에서 글을 읽으며 숙직을 하고 있었는데, 중종이 그 소리를 듣고 술과 안주를 내리면서 글을 읽는 소리가 맑고 고와서 가곡도 잘 할 것 같으니 노래를 한번 불러 보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에 김구는 두 수를 지어 불렀는데 위 시조는 그 중 한 수이다. 김구, 『自菴集』, 『한국문집총간24』(민족문화추진회, 1996).
87) 위의 책.

두 번째 작품은 김구가 기묘사화로 벼슬에서 물러난 뒤 지은 것이다. 화자는 성은을 태산과 하해와 비교하면서 가장 높고 깊은 것은 성은이라 하여 임금의 은혜에 대한 지극함을 노래하였다.

이처럼 김구의 <연군시조>에서는 임금을 향한 화자의 지극한 사랑과 성은에 대한 예찬적인 태도를 볼 수 있다.

4) 신계영의 <연군가>

蒼梧山 히 딘 후의 歲月이 깁퍼가니
님 그린 ᄆᆞ음이 가디록 새로왜라
雨露恩 싱각하거든 더욱 셜워 ᄒᆞ노라.

늙고 병이 드러 江湖의 누워신들
님 向ᄒᆞᆫ 丹心이 줌 드다 니줄소냐
千里의 一片魂夢이 오락가락 ᄒᆞᄂᆞ다.

蒼然ᄒᆞᆫ 三角山이 半空의 셧ᄂᆞᆫ 얼굴
눈의 뵈ᄂᆞᆫ ᄃᆞᆺ 그리오미 ᄀᆞ업거든
하ᄆᆞᆯ며 五雲宮闕이야 닐러 뭄 ᄒᆞ리.[88]

<연군가>는 신계영(1577~1669)이 비교적 순탄한 벼슬생활을 마친 후 치사환향한 상태에서 지은 시조다.[89] 첫 번째 작품에서 "蒼梧山 히 딘 후의 歲月이 깁퍼가니" 라는 표현을 통해 작가가 작품을 지을 당시는 임금이 승하하고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났음을 알 수 있다.[90] 또한 임금의 넓고 큰 은혜는 세월이 지날수록 화자의 마음속에 짙게 배어 임금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이 더욱 커짐을 나타내고 있다. 두 번째 작품에서는 화자가 나이가 들어 벼슬을 그만둔 후 강호에서 지내고 있으나 꿈에서도 임금을 잊지 못한다고 하여 화자의 일편단심을 그리고 있다. 세 번째 작품에서는 임금이 계신 궁궐에 대한 짙은 그리움을 노래하면서 임금을 향한 끝없

88) 『仙石遺稿』(국립중앙도서관 소장).
89) 이상원, 『17세기 시조사의 구도』(월인, 2000).
90) 위의 책.

는 그리움을 표현하였다.

이처럼 <연군가>는 화자가 치사한객의 삶을 살고 있으나 임금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임금에 대한 짙은 그리움으로 나타나 있는 작품이다.

이상 연군, 견적, 보효에 따라 그 내용을 고찰해 본 작품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 군	정몽주의 <단심가>, 신흠의 <연군시조>, 정철의 <사미인곡>과 <속미인곡>
견 적	신충의 <원가>, 정서의 <정과정>, 장경세의 <강호연군가>, 윤선도의 <견회요>, 조위의 <만분가>, 조우인의 <자도사>, 송주석의 <북관곡>, 김춘택의 <별사미인곡>, 이진유의<속사미인곡>
보 효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작자 미상의 <감군은>, 김구의 <연군시조>, 신계영의 <연군가>

다음 장에서는 위에서 고찰해 본 작품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군시가의 세 유형인 연군, 견적, 보효의 특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Ⅳ. 연군시가의 유형별 특성

1. 군주를 향한 일편단심 : 연군형

연군은 전근대시대 신하들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었던 의식으로 ‘충’의 덕목은 지배계층에서 절대적인 것이었다. 때문에 그들의 문학에는 강한 연군의식이 나타난다. 연군은 곧 일편단심이다. 작품 속 화자들은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충성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었다. 이는 자기희생을 충의 연장선으로 또는 충의 귀결처로 여겼음을 말해준다.『청진』무명씨의 연군에 해당하는 작품에서는 "나의 님 向혼 뜻이 주근 後면 엇더홀지", <단심가>에서는 "白骨이 塵土되여", 신흠의 시조에서는 " 내 가슴 헤친 피로 님의 양ᄌᆞ 그려 내어", <사미인곡>에서는 "출하리 ᄉᆡ어디여 범나븨 되오리라", <속미인곡>에서는 "출하리 ᄉᆡ여디여 낙월이나 되야이셔" 라고 하여 모두 자기희생을 통한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자신의 절개를 표현하기 위해 매화 같은 유가적인 사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사물과 관련 고사를 인용하였다.

특히 시조에서는 ‘일편단심’과 ‘충’의 어휘가 가사에서보다 직접적으로 많이 거론된다. 이는 가사의 연군형 시가보다 시조의 연군형 시가가 강한 충성의 분위기를 표출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또한 시조는 형식적 제약이 따르는 정형시라면 가사는 시조에 비하여 자유로운 형식을 취한다. 때문에 ‘연군’의 주된 정서인 ‘충’의 의식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단형인 시조에서는 직접적인 어휘로 표현하게 되고, 장형인 가사에서는 화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비유를 통하여 표현하게 된다. 그래서 가사의 연군형 시가에서는 화자가 여성으로 설정되고 임금은 마치 사랑하는 ‘님’처럼 그려지기도 한다. 과거 여성은 오로지 한 남자만을 섬겨야 했고 언제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님을 기다려야 하는 존재였다. 작가는 이러한 여인의 모습에 자신을 비유하여 임금을 향한 자신의 충성심을 담아서 표현하였다. 위와 같이 사랑하는 연인에게 온 정성을 다하듯 임금을 향한 일편단심을 표현하기 때문에 연군형 시조가 강렬한 충의 분위기를 표출한다면 연군형 가사는 감성적인 분위기를 표출한다. 이처럼 시조에서는 직접적인 어휘 선택과 남성 화자의 설정으로 강인한 어조의 분위기가 표출되고, 가사에서는 비유적인 표현과 여성 화자의 설정으로 시조보다는 감성

적인 어조의 분위기가 표출되어 시조에서 연군의 느낌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연군형 시가에 드러나는 화자들의 태도는 자신이 사랑하는 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처지일지라도 님에 대한 원망의 의식을 드러내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서도 보란 듯이 몇 년이고 지속되어 온 님을 향한 그리움의 자세를 일관되게 보여주며, 오직 님을 모시고 싶으나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만이 그려질 뿐이다. 또한 화자의 생활이 자기중심적으로 그려지지 않고 모든 것은 님을 향하여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여흘의 소리'가 님의 울음이 되고, '꽃이 피는 시절'이 오는 것은 님이 오시는 때로, '낙엽 소리'는 님의 발자국 소리로 전환이 되는 것처럼 화자는 자신의 주변 환경을 모두 '님'과 엮어서 생각을 한다. 가사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님께 드리고 싶은 사물과 오로지 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찬 화자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사미인곡>에서는 봄에는 매화, 여름에는 옷, 가을에는 달빛, 겨울에는 봄볕을 들면서 4계절의 변화와 함께 님께 드리고 싶은 사물을 제시하여 님을 향한 화자의 지극한 정성이 돋보인다. <속미인곡>에서는 이별한 님이지만 춘한고열과 추일동천에 어떻게 지내실지, 식사는 잘 하고 계시는지, 잠은 잘 주무시는지 등 마치 자식을 걱정하는 어머니처럼 작은 것에서부터 님의 안부와 관련된 모든 것을 화자는 염려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들은 눈과 귀 등 화자의 신체는 물론 근심, 슬픔, 기쁨 등 화자의 의식까지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군형 시가는 이처럼 모두 일편단심을 바탕으로 님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는데 시조에서는 변하지 않는 절개나 그리움에 대한 내용만을 담고 있는 반면, 가사에서는 그리움의 구체적인 상황과 더불어 님에 대한 염려나 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어 하는 화자의 정성까지 나타나 있다. 이것은 시조나 가사 모두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은 같으나 시조처럼 단형에서는 나타내려는 핵심만 표현할 수 있고, 가사처럼 장형에서는 자신이 나타내려는 핵심에 덧붙여 더 효과적으로 다른 상황을 덧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대적으로 봤을 때 연군형 시가는 조선전기에 많이 쓰여졌다. 이는 연군형 시가가 시조 장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향가와 고려속요는 현존하는 작품 수가 시조보다 적을 뿐더러 특히 향가는 작가에 승려가 많으므로 충보다는 종교적이거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감정에 대한 작품이 더욱 많다. 조선은 유교적 정치이념을 내세우는 국가로서 전기는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강력한 봉건적 질서를 형성해 나갔다. 지배계층들은 문학에 있어서도 유교이념을 바탕으로 한 작품들을 썼다.

특히 조선전기는 사대부문학의 시대라고 할 만큼 지배계층의 활발한 문학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때 사대부 계층들의 성장과 함께 시조를 비롯하여 악장, 가사 등 문학도 성장하였다. 이들은 문학을 통하여 봉건적인 지배질서 유지와 정치적인 권력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학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것으로 임금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기에 지배층들은 문학에 봉건적인 의식을 표현하였다. 그 중에서도 시조는 조선전기 때 가장 많이 향유되어온 장르로서 지배계층들은 시조에 유교적인 사상을 담았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문학 장르를 선택함으로써 작가들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식을 더 널리 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지배계층에게 시조라는 장르는 강한 충절 의식을 담아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회복하거나 더욱 굳건하게 하는 좋은 수단이 된 것이다. 또한 강한 일편단심의 정서를 담고 있는 연군형 시가는 굳이 긴 내용을 쓸 수 있는 형식이 아니더라도 단형의 형식 안에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시조의 형식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 더불어 오히려 긴 형식을 취하여 표현하는 것보다 단형의 형식을 취하여 임금을 향한 연모의 마음을 직접적이고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강렬한 일편단심을 전달하기에는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2. 소외된 화자의 복합 감정 : 견적형

견적은 연군에 비하여 화자가 느끼는 비극적인 정서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연군은 임금을 향한 일편단심의 의지를 나타내는 반면 견적은 님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슬픔이 묻어난다. 즉 견적에서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부정성을 바탕으로 화자 중심의 체험적 서정이 그려져 있다. 삶의 전부인 님과 떨어져 있는 상황은 화자에게 비극적인 상황이고 화자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함은 연군과 견적형 시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그러나 연군형 시가에 비해 견적형 시가에서는 화자가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부정의 모습이 강하게 드러난다. 연군에서 나타나는 비극적인 상황은 단지 님과 떨어져 님을 위해 자신의 본분을 다할 수 없는 상황이며, 화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비롯되는 안타까움을 죽어서라도 님의 곁으로 가 실현하고 싶은 소망을 나타낸다. 반면 견적의 화자에게는 님과 떨어져 지내게 된 상황 자체가 비극적인 상황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부정의식이 강하게 나

타난다. 때문에 작품 속 화자는 자신의 서러움과 슬픔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요인에 대해서는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임금 대신 영향을 미친 정적을 향하여 비판하고 있다.

정적을 비판하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부당성을 호소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구절절한 사연이 필요하다. 때문에 견적은 길이에 제약이 따르는 시조나 다른 여타의 시가 장르에서보다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길이에 제한이 따르지 않는 가사에서 많이 나타난다. 특히 가사 중에서도 유배가사라 일컬어지는 작품에서 견적의 특성이 많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억울하게 유배를 간 화자로서는 자신의 억울함이 어떤 것인지, 비판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 자신이 현재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임금에 대한 자신의 충성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등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변함없는 연군지정을 보이는 것만이 다시 해배의 은덕으로 관직에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들 유배가사의 내용에는 일반적인 견적형 시가에서와는 조금 달리 역사적인 사건과 시대상황이 나타나 있기도 하고, 유배 가는 여정과 유배지에서의 생활이 잘 드러나 있다.

千層浪(천층랑) ᄒᆞᆫ가온대　　百尺竿(백척간)의 올나더니
無端(무단)ᄒᆞᆫ 양각풍이　　宦海中(환해중)의 니러나이
億萬丈(억만장) 소희 쎄져　　하ᄂᆞᆯ 싸흘 모ᄅᆞᆯ노다
魯(노)나라 흐린 술희　　邯鄲(한단)이 무슴 罪(죄)며
秦人(진인)이 醉(취)ᄒᆞᆫ 盞(잔)의　　越人(월인)이 무음 탓고
城門(성문) 모딘 블의　　玉石(옥석)이 홈씌 ᄐᆞ니
ᄯᆞᆯ 압희 심은 蘭(난)이　　半(반)이나 이우레라

盜跖(도척)도 셩히 놀고　　伯夷(백이)도 餓死(아사)ᄒᆞ니
東陵(동릉)이 놉픈 작가　　首陽(수양)이 ᄂᆞ즌 작가

湖南(호남) 어늬 고디　　鬼蜮(귀역)의 淵藪(연수)런디
魑魅魍魎(이매망량)이　　ᄯᆞᆯ커디 저즌 ᄀᆞ의
白玉(백옥)은 므스 일고　　靑蠅(청승)의 깃시 된고
北風(북풍)의 혼자 셔셔　　ᄀᆞ 업시 우ᄂᆞᆫ ᄯᆞᆺ을
하ᄅᆞᆯ ᄀᆞ튼 우리 님이　　젼혀 아니 술피시니

위는 <만분가>의 일부분으로 당시 역사적인 사건과 시대적인 사회상이 그려져 있다. 또한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매우 비극적으로 그리고 있는 화자의 태도를 통해 화자가 자신의 억울함과 부당함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배지의 여정과 생활은 특히 이진유의 <속사미인곡>에서 잘 나타나 있다. 이진유는 작품 속에 '셔하-봉황셩-구연셩-압녹강-쳥쳔강-패슈-근긔' 등 차례대로 자신이 지나온 행적을 그려 기행가사의 면모를 보였으며 유배 가는 여정 속에서 작가가 겪은 어려움 또한 실감나게 잘 묘사하고 있다.

업동이 깁허지고　　뉵디난 못 통하니
냥식도 필졀거든　　반찬이야 의논하며
염샹을 못 먹거든　　어육이야 바랄소냐

삼하랄 열딘하고　　고황을 포긱하니
염증도 그지업고　　비습도 자심하다
승예 문맹은　　백가지로 쏘지지고
샤갈오공은　　사벽의 죵횡하니

위는 험난한 유배 길을 겪고 도착한 유배지의 열악한 삶을 그려놓은 일부분이다.

유배를 가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송주석의 <북관곡>에 잘 나타나 있다. 송주석은 조부인 송시열이 억울하게 유배가게 된 배경을 설명해 놓고 있다.

朞年服 衆子設이　　禮ᄃᆡ로 ᄒᆞ려더니
海尹의 凶疏 後예　　샤셜이 橫流ᄒᆞ야
卑主 二宗設과　　國本이 未定上疏
…(중략)…
仁宣后 服制일이　　마초와 날셰이고
僭言이 罔極ᄒᆞ야　　온갖 길노 나아가니

이처럼 견적형에 속하는 가사 중 '유배가사'라 불리는 가사에서는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더불어 역사적인 사건과 시대적 상황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견적형 시가 속의 화자들의 태도는 연군형 시가 속의 화자의 태도에 비해 자기중심적이라 할 수 있다. 연군형 시가 속 화자들이 님과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오로지 님을 걱정하고 님에 대한 일편단심의 정서가 충만한 태도로 님에 대한 그리움을 보이는 반면 견적형 시가 속 화자들은 님에 대한 그리움만이 아닌 앞서 가사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신이 겪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거침없이 드러내면서 자신이 얼마나 현재 고통 받고 괴로운지를 보여 동정심을 자아내고 애절함을 보여 다시금 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태도를 보인다.

시대적인 면과 관련하여서 연군이 조선전기에 많이 나타난다면 견적은 조선후기 작품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유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봉건적 질서를 굳게 다지던 조선전기와는 달리 조선후기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을 겪으면서 조선의 정치, 사회, 경제 전반적으로 변동이 일기 시작했다. 지배계층은 스스로의 무능함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고, 백성들 또한 점차 어려워지는 생활에 더 이상 지배계층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다. 당쟁 또한 전기보다 점점 심해져 예송논쟁을 비롯하여 숙종 때 가서는 절정을 이루게 되고 유배 가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17세기 중엽 실학사상의 등장으로 봉건체제의 바탕이 되는 성리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등 봉건체제의 질서가 점차 와해되어 가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문학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일어났다. 전기는 지배층의 문학이라고 하면 후기에는 평민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문학의 향유층이 다양해졌다. 그리하여 평민들은 그들의 성장된 의식을 소설과 가사, 수필 등 다양한 문학작품에 담았다. 이러한 봉건체제의 질서 와해는 '나'라는 자각을 불러왔다. 즉 모든 것이 상, 하 질서에 의존하고 의식이 거기에 맞추어져 '나' 자신보다는 그 위의 것을 생각했던 것이 조선후기로 접어들면서부터는 무엇보다 '나'라는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봉건체제 안에서는 복종이라는 것만 존재했던 것이 이제는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평민들은 문학을 통해 지배층을 풍자하기도 하고 사회체제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었다. '나'라는 개인을 인식하면서 '나'를 중심으로 사회를 바라보게 되고 나의 생각을 표현하면서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의식의 변화가 조선후기에 견적에 해당하는 작품이 더 많이 나타나게 한 이유이다. 지배계층에서도 평민층과 마찬가지로 '나'를 중히 여기고 '나'의 소신을 밝힐 줄 아는 의식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연군지정을 읊는 문학에서 전기에는 자신보다 그리움의 대상인 임금에 초점을 맞추어 오로지 임금을 향한 충만한 마음의 연군지정이 그려졌다면, 봉건체제의 질서

가 와해되기 시작하는 조선후기에는 같은 연군지정을 담고는 있지만 이와는 성향이 다른 자기중심적인 감정을 토로하면서 임금을 향한 연군지정이 그려졌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조선후기에는 당쟁에서 패해 유배 가는 사람들이 많아져 유배를 가게 된 정치인들은 그곳에서 작품을 통하여 자신에게 내려진 부당한 처사에 대한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하고, 이별한 가족에 대한 슬픔, 간신들에 대한 비판, 유배생활의 힘겨움 등을 나타내면서 조선전기보다는 개인적인 안위와 감정을 더 충실히 표현하는 견적형 시가가 더 활발히 나타났다.

3. 군은에 대한 감사의 정 : 보효형

보효는 본고에서 선정한 작품을 대상으로 보았을 때 악장과 시조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악장은 장르적인 특성상 송축가로서 군은에 대한 감사를 넘어 찬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정서적인 감흥의 발로인 작품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정치적인 목적이 뚜렷하다.

시조에서는 강호시가에 보효의 특성을 보이는 작품들이 많다. 강호시가는 혼탁하고 어지러운 정치생활을 벗고 강호에 묻혀 사는 사대부나, 나이가 들어 벼슬을 그만두고 자연에 귀의한 치사한객이 자연을 벗 삼아 심신을 수양하며 유유자적하게 보내면서 자연을 예찬하며 지은 것이다. 그러나 자의 또는 타의적인 이유로 정치세계를 떠나 강호한정의 삶을 누리는 그들이지만 온전히 세속에 대한 미련을 모두 버리지 못하고 충직한 신하로서 임금을 향한 연군지정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보효의 특성을 지닌 강호시가는 이러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연 속에서 누리는 삶조차 임금의 은혜라 여겨 은덕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출한 것이다. 더불어 자연과 관련해 보효에서는 두 가지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강호시가처럼 강호한정의 삶을 누리면서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세속에 남아 정치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임금의 은혜를 다 갚고 자연으로 가겠다는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특히 두 번째 화자의 태도에서는 자신이 본래 꿈꾸는 것은 강호의 삶이나 세속에 머무르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갈등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나 곧 이를 성은에 보답하기 위한 어쩔 수없는 행동이라 하여 자기 위안으로 삼는다.

보효는 문학 장르로 보았을 때 장형의 형식인 가사보다는 단형의 형식인 시조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는 강한 일편단심의 충의 의식을 담고 있는 연군이 시조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과도 비슷하다. 연군이 단형인 시조 안에서 충분히 발현될 수 있었던 것처럼 보효 역시 긴 장형의 형식이 아니라 단형의 형식 안에서 충분히 표현될 수 있는 의식이기 때문이다. 보효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작가가 성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읊는 것으로 구구절절한 사연이 필요하지 않다. 때문에 굳이 장형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단형의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연유로 보효는 장형의 형식보다는 단형의 형식인 시조에서 많이 나타난다. 또한 가장 널리 향유되고 익숙한 시조가 보효의 특성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문학 장르였을 것이다.

한편 보효는 성은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는 마음이지만 작품을 통해 살펴보면 시대적으로 조선전기에 많이 나타난다. 본고에서 선정한 작품을 통해서 보면 성덕을 기리고 왕업을 칭송하는 악장과 강호한정의 삶을 노래한 강호시가에서 보효의 특성을 살필 수 있었는데 이들 작품들은 조선전기에 활발히 지어졌던 것이다. 임금을 칭송하게 되는 것은 정치적으로 강력한 왕권을 형성해 나아가고 있을 때나 임금의 은혜를 입어 편안한 삶을 유지하고 있을 때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전기는 사대부의 성장과 더불어 봉건적 지배 질서가 잡혀가면서 관료나 처사적 삶에서 노래한 작품들이 보효의 성격으로 많이 나타났다. 반면 조선후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사회가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효의 성격을 지닌 작품들이 전기에 비해 많지 않을 수밖에 없다.

더불어 성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은 유교적인 충의 사상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는 하나 자신의 처지에 대한 만족이 없을 때는 발현되기 힘들다. 화자가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유지하고 있을 때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 대한 만족을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여길 수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보효형 시가를 창작한 모든 작가의 상태가 꼭 그러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 보효의 특성을 지닌 작품들의 작가는 작품을 지을 당시 어느 정도 높은 사회적 지위를 지녔거나 벼슬을 그만두고 여유롭게 생활하는 치사한객 또는 태평성대 속의 백성 등으로 삶에 대한 만족감을 지닐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 놓인 백성이라 할 수 있다.

Ⅴ. 결 론

이상에서 지금껏 '연군'이라는 하나의 인식 아래 단일하게 파악해오던 연군시가를 『청구영언』 무명씨의 분류체계에 따라 연군, 견적, 보효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현대에는 임금이 존재하지 않아 연군에 따른 세분화된 인식을 하기가 힘들지만 고전작품이 지어질 당시에는 임금이 존재했었고, 그에 따라 임금과 관련된 세분화된 인식의 경계가 존재했다. 그러므로 현대인의 인식 아래 고전작품을 묶어 해석하기 이전에 과거 선조들의 인식을 찾아 그 안에서 고전작품을 연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에 연군시가는 임금을 대상으로 임금에 대한 연군지정을 읊는 작품으로 보고 『청구영언』 무명씨에 분류되어 있는 연군시가의 작품들을 살펴, 그 유형을 화자의 정서적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군, 견적, 보효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연군은 충신의 일편단심의 정서가 중심적으로 그려진다. 연군 속 화자들은 강인한 어조로 자신의 강렬한 충절을 노래하거나 충절을 다할 수 없는 처지에서 연군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며 안타까워한다. 작품 속에 나타나는 화자의 어조는 조금씩 다르나 모두 공통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을 님에 대한 일편단심과 님을 걱정하는 화자의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견적은 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님에 대한 그리움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화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부정의 인식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화자들은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하며 자신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토로하고 님과 헤어진 상황에 대한 잘못을 정적에게 돌려 책임을 묻고 비판하며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하는 등 비극적인 정서를 담아 표출한다. 보효는 성은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거나 이에 보답하려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특히 강호의 삶과 관련하여 화자의 내면지향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강호의 삶을 추구하나 군은을 갚기 위해 속세에 남아 임금의 은혜에 보답한 뒤 강호의 세계로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속세로부터 벗어나 안빈낙도 하면서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태도이다.

이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향가, 고려속요, 악장, 시조, 가사에서 대표적 작품을 선정하여 각 유형별로 내용을 고찰해 보았다. 이에 연군과 보효는 시조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었고 견적은 가사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었다. 연군과 보효에 비해 견적은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더불어 화자의 억울한 사연과 고통을 호소하는 비극적인 정서를 담아야 하기 때문에 장형인 가사가 더 적합하다. 반면 연군과 보효는

단형인 시조 형식 안에서 충분히 전달하고자 하는 정서를 표현할 수 있으며, 장형의 형식보다 오히려 단형의 형식으로 충절과 감사의 마음을 집약적으로 표현해 전달하고자 하는 정서를 더 효과적으로 담을 수 있다.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 조선전기에는 연군과 보효형 시가가, 조선후기에는 견적형 시가가 많았다. 조선전기에는 강한 봉건체제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문학을 통해서도 이러한 체제에서 비롯된 유교의식들이 표출되었다. 그리하여 강한 일편단심의 충의 의식을 담고 있는 연군형 시가의 작품과 임금을 칭송하는 의식을 바탕으로 성은에 대한 감사의 정이 발현되는 보효의 작품들이 많았다. 그러나 조선후기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점차 봉건체제가 와해되기 시작했고 그간 계속되어 오던 당쟁은 후기에 더욱 심해져 유배 가는 사람들 또한 많았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와 봉건체제의 와해는 의식의 변화를 가져와 임금에 대한 강렬한 충성과 임금의 덕을 기렸던 조선전기와는 달리 조선후기에는 연군지정을 바탕으로 하되 좀 더 자기중심적인 감정으로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비극적인 정서를 함께 표출하는 견적형 시가가 많아지게 되었다.

덧붙여 보효는 대다수의 화자가 연군과 견적 속 화자들에 비해 자기 삶에 만족하고 편안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 화자로 볼 수 있다. 군은에 대한 감사의 정이라는 것은 어렵거나 힘든 상황보다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평화로운 상태에서 더욱 발현되는 정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고에서는 하나로 인식되어오거나 독자적인 분야로 논의되어 오지 못했던 연군시가에 대해 선조들이 인식했던 인식의 경계선을 찾아보고 그 결과 유형별로 지향점이 다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각 장르별 연군시가 작품을 대상으로 지금껏 체계적인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연군시가를 세 유형별로 분류하여 작품들의 내용을 고찰하고 연군시가의 세 유형이 지니는 특성을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그 유형들은 시대와 문학 장르에 따라 나타나는 양상이 조금씩 다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런 본고의 연구 결과는 기본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작품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그 한계가 분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연군시가의 유형별 특징들이 다양하게 제시되는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참 고 문 헌】

1. 저서 및 자료집

김　구, 『自菴集』, 『한국문집총간24』, 민족문화추진회, 1996.

김성배, 『(주해)가사문학전집』, 민속원, 1997.

김천택, 『청구영언』, 조선진서간행회, 1948.

박을수, 『한국시조 대사전』, 아세아문화사, 1992.

신계영, 『仙石遺稿』,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이병기, 『國文學全史』, 신구문화사, 1957.

이상보, 『한국가사문학의 연구』, 형성출판사, 1974.

-----, 『한국가사선집』, 민속원, 1999.

이상원, 『17세기 시조사의 구도』, 월인, 2000.

이형대·이상원·이성호·박종우, 『국역 고산유고』, 소명출판, 2004.

임기중, 『한국가사주해연구』, 아세아문화사, 2005.

장경세, 『少村集』 권2, 『한국문집총간』 속6, 민족문화추진회, 2005.

정병욱, 『한국고전시가론』, 신구문화사, 1999.

2. 논 문

강구동, 「고시조에 나타난 충·효사상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6.

강문호, 「유배가사 연구」, 경성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8.

김명준,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의 창작 시기와 세계상」, 『고시가연구』 제15호, 한국고시가문학회, 2005.

김봉선, 「이재 조우인 시가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3.

고순희, 「18세기 정치현실과 가사문학」, 『어문학』 78집, 한국어문학회, 2002.

김성기, 「<원가>의 해석」, 『한국고전시가작품론 1』, 집문당, 1992.

-----, 「원가의 연구」, 『古詩歌硏究』 12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3.

김성언, 「<감군은> 고」, 『한국고전시가작품론 1』, 집문당, 1992.

김용배, 「고시조에 나타난 충효 사상 연구」, 단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4.
김용철, 「『진청』「무씨명」의 분류체계와 시조사적 의의」, 『고전문학연구』 16집, 한국고전문학회, 1999.
김정주, 「만분가연구」, 『인문과학연구』 14호, 조선대 인문과학연구소, 1992.
김주곤, 「<조위의 만분가 연구>」, 『영남어문학』 14집, 영남어문학회, 1987.
-----, 「유배가사에 나타난 충절의식 양상」, 『한민족어문학』 16집, 한민족어문학회, 1989.
-----, 「韓國時調에 나타난 忠 思想 硏究」, 『경산대학교논문집』 17집, 경산대학교논문, 1999.
김진구, 「17세기 사대부가사의 세계관 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김진영, 「<사미인곡>의 작품세계」,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집문당, 1992.
김창원, 「신흠 시조의 특질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16집, 한국고전문학회, 1999.
문흥구, 「송강의 연군시가연구」, 『새국어교육』 62권, 한국국어교육학회, 2001.
류연석, 「<만분가>와 <사미인곡>의 비교연구」, 『한국언어문학』 제42집, 한국언어문학회, 1999.
-----, 「<萬憤歌>의 內容的 考察」, 『고시가연구』 제14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4.
-----, 「속사미인곡의 기행문학성 고찰」, 『고시가연구』 16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5.
박노준, 「<정과정>의 역사적 배경」, 『고려가요의 연구』, 새문사, 1990.
박상영, 「신흠 시조의 이중구조와 그 의미 지향」, 『한국시가연구』 22집, 한국시가학회, 2007.
박억만, 「頤齋 曺友人 歌辭文學 硏究」, 부산대학교 석사논문, 1999.
박일용, 「<만분가>의 형상화 형태-연군적 정서와 발분적 정서의 교합 양상-」,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집문당, 1992.
박춘우, 「<속미인곡> 연구」, 『대구어문논총』 14집, 대구어문학회, 1996.
박해남, 「신흠의 시조 창작 배경과 작품 양상」, 『반교어문연구』 23호, 반교어문학회, 2007.
성기옥, 「신흠 시조의 해석 기반 - <방옹시여>의 연작 가능성」, 『진단학보』 81,

진단학회, 1996.
신영숙, 「육가계 시조 연구」, 충남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양태순, 「<정과정>의 종합적 고찰」, 『한국고전시가작품론 1』, 집문당, 1992.
우부식, 「유배가사 연구」, 충남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5.
윤재철, 「이진유의 「속사미인곡」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1995.
이가원, 「萬憤歌 硏究」, 『동방학지』 6집, 연세대 동방학연구소, 1963.
이문규, 「<속미인곡> 소고」,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집문당, 1992.
이병탁, 「古時調에 나타난 儒敎思想 硏究」, 전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9.
이상원, 「신흠의 『방옹시여』 연구」, 『17세기 시조사의 구도』, 월인, 2000.
-----, 「17세기 육가형 시조 연구 - 장경세의 <강호연군가>와 이중경의 <어부별곡>」, 『한국언어문학』 65집, 한국언어문학회, 2008.
이현주, 「유배가사의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논문, 2001.
이형대, 「<원가>와 <정과정>의 시적인식과 정서」, 『한성어문학』 제18집, 한성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9.
장응범, 「古時調의 背景思想 敎育方法 硏究」, 아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8.
정경주, 「정서의 생애와 충신연주지사로서의 <정과정>」 『釜山漢文學硏究』 8집, 동양한문학회, 1994.
정석봉, 「流配歌辭考」, 전북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78.
정원표, 「군은의 표현과 서정성의 문제-맹사성의 <강호사시가>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집문당, 1992.
정익섭, 「美人歌辭 巧(上)」, 『호남문화연구』 1집, 全南大學校, 湖南文化硏究所, 1963.
정재호, 「국문학에 나타난 충효사상에 관한 고찰」, 『국어국문학』 18권 제 77~78호, 국어국문학회, 1978.
조성환, 「歌辭文學과 謫所連關」, 『論文集』 16집, 군산대학교, 1989.
조성향, 「유배가사 고찰」, 수원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1.
조세형, 「한국 애정시가의 전통과 시공간적 상상력」, 『국어국문학』 제147호, 국어국문학회, 2007.
최규수, 「김춘택의 <별사미인곡>에 수용된 <미인곡>의 어법적 특질과 효과」, 『온지논총』 4집, 온지학회, 1998.

최상은, 「‘戀君’歌辭의 짜임새와 미의식」, 『반교어문연구』 제5집, 반교어문학회, 1994.
-----, 「<만분가>와 <사미인곡>의 작품구조와 작가의식」, 『한민족어문학』 15집, 한민족어문학회, 1988.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국어교육	학 번	20068018	과 정	석사
성명	한글 : 강찬미	한문 : 姜贊美		영문 : Kang Chan-Mi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9 404호				
연락처	전화 : 010-5375-7179		E-MAIL : kchanmi@nate.com		
논문제목	한글 : 연군시가의 유형별 특성 연구 영문 : (A) Study on Characteristics by the Types of the Yeongun Poetry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9년 1월 7일

저작자: 강찬미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